

대한치과 의사 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口瘡病二十五	鼻衄三十二	消渴十九	冷熱痢十六	筋鍊木竹籤刺十三	瘰癧	湯火瘡七	丁瘡一	癰疽二	惡瘡五	丹毒癰癤八	喉痺十六	新酒十三	熱渴十	食噎七	百葉毒四	食毒一	鄉藥方上卷
	眼病二十三	小便不通十七	大小便不通十七	痔漏腸風齒心腸痛一	附骨疽	升毒癰癤八	中卷目下五	癰疽二	惡瘡五	丹毒癰癤八	喉痺十六	新酒十三	熱渴十	食噎七	百葉毒四	食毒一	鄉藥方上卷
	耳病二十四	陰癰陰瘡三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癰疽二

下卷目十二

통권 14호

1991

제12권 제2호 · 통권14호 · 1960년 10월 7일 창립

대한치과 의사 학회

UNOVEST

하이폴 ENAMEL BOND

캄파짓 PIT & FISSURE SEALANT

富平齒科化學工業社

祝
發 展

大韓齒科醫史學會



(032) 574-3506

(02) 774-1594

인천시 서구 석남 2동 550-10

대표 · 金東培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1

대한치과의사학회

大韓學報

大韓學報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Oriental Medicine

1991

表紙의 說明

겉으로 삼은 것은 「향약 구급방」의 목차의 일부다. 본서의 간행 연도는 미상이나, 아마도 13세기 후반 내지 14세기 초반이리라. 김두중(金斗鍾)은 1236년경이라 추정하였으나 다소의 이론(異論)도 있다. 본서는 상·중·하 3권과 부록으로 되었다. 원본은 아직 국내에선 발견되지 못했다. 본서 중의 치과부문에는 한국 최초의 서역산(西域産) 본초의 사용이 기재되어 있다. (李 漢 水)

本誌의 英文略稱 J.K.H.D.

본지의 영문 약칭은 이미 본지 제10권 제1호(통권 10호)에 기록된 J.K.H.D.이다. 점차로 본지에 서의 인용 논문이 증가됨에 따라 그 정식 약칭이 통일되어야 하겠다.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12卷 第2号 通卷14号

目 次

卷 頭 言

- 1992년 送年 集談會에 즈음하여 李丙台 (6)

綜 說

- Saint Apollonia에 關한 諸史料의 綜合整理 李德一 (7)
○ 古代 日本에의 大陸醫藥의 流入 金正均 (9)
○ Silk Road의 醫史學的 研究를 위한 基礎知見의 調査와
그 綜合(第2報) 李漢水 (11)
○ 齒科醫學分野의 歷史 金官與 (15)
○ Dr. Willoughby D. Miller와 Dr. Green Vardimam Black 李時雨 (17)
○ 齒醫學이 追求하는 方向 任慶彬 (19)
○ 日本의 19世紀 前半까지 齒科醫學略史 洪禮杓・金聖男 (23)
○ 東西醫學의 地理的 區劃問題 李漢水 (25)

大學敎材研究 I

- 西洋 中世齒科 醫學史의 整理와 그 要点 李漢水 (27)

座 談 會

- 6·25전까지의 齒科界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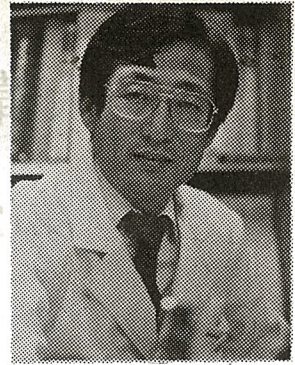
其 他

- 學會 消息 (57)
○ 表紙의 컷 說明 (4)

大韓齒科醫史學會 發行

1991년 送年 集談會에 즈음하여

會 長 李 丙 台



안녕하십니까.

오늘 1991년 12월 13일은 우리의 南과 北 이 和解를 하고 不可侵을 약속했으며 交流를 하고 합의한 의미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날,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齒科醫史學의 연마와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 우리 齒科界에서 일어난 사건과 행사를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 國家考試에서는 史上 初有로 齒大生이 무더기로 낙방했던 不幸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 天職으로 알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齒科技工士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더욱 불행한 한해였습니다. 몇해전, 파업때문에 폐업해야했던 병원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70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 치과의학사>에 대한 특강을 했고 이때, 저희 학회에서는 중국치과계문헌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 순서는 바뀌었으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통일원>으로부터 본인이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中國과 日本을 한 차례씩 방문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개원가에는 <임플란트> <근관치료학>의 Study clul 또는 학회창립이 있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 FDI, JDA의 학술대회에도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많은 국제학술교류가 있었습니다.
- 저희 학회에서는, 거의 每月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學會活性化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만강홍>에서, 1945~1950년 사이의 시대적 치의학에 대한 좌담회를 지헌택 김주환 이춘근 이렇게 세원로를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여야겠습니다.
- 다만, 매년 2회씩 학회지발간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도중에 다소 원만치 못한 여건 때문에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음에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금만 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醫史學의 태두이신 고 김두중 박사의 육필원고 사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하여 김중만 원장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입회원 연세치대 해부학교실 김희진 선생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에게는 <中國 口腔醫史學史考=주대성 박사 著>를 드립니다.

送舊迎新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 13일

綜 說

Saint Apollonia에 關한 諸史料의 綜合整理

李 德 一 *

치통 및 치과의사의 수호신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숭앙되는 성(聖) 아포로니아에 관한 기록은 근래 한국의 경우도 자주 산견되기에 그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정리하여 보다 자세하고도 정확한 것을 얻고자 한다.

아포로니아가 Alexandria에서 카토릭교 신도로서 순교한 때는 249년 2월 9일이고 때는 로마의 황제 Philippus Arabs의 시기이다.

그리고 로마 법왕청에서 그녀를 성열(聖烈)에 모시게 된 때는 그로부터 50년후인 300년이며 그 때에 그 기일(忌日)도 2월9일로 정하였다.

아포로니아의 사료(史料)로는 카토릭교 관계 고전에 상당히 많이 있으나 그 태반은 독실한 순교자로서 그 믿음을 크게 찬미한 문장으로 시종하였기에 그것은 도리어 그 정확성을 잃게 한 결과도 초래하였고, 또 큰 실수는 그녀의 순교 년월까지도 사실보다는 114년이나 앞서게 기록한 점이다.

그녀에 대한 기록들은 갖가지로 전해져 그 정설(定說)은 20세기 초까지도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것이 매우 선명히 알려지게 된 때는 1915년이다. 곧 Warther Bruck의 저서 Das Martyrium Heiligen Apollonia und Seine Darstellung in der Bildenden Kunst에 의해서 이다.

로마제국의 Philippus황제 시기에 그녀는 카토릭교에 대한 박해로 순교한 것으로 이해되는 수가 흔히 있었으나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정설이다. 다소 그녀의 희생된 배경은 다른 것이다.

당시 Alexandria에는 시민들의 신망을 얻은 어느 예언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카토릭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 그 예언자는 시민들에게 이곳에는 곧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전염병이 유행하여 모든 시민들은 희생될 터이라 하고, 그 까닭은 Egypt의 많은 신(神)들이 분노한 탓이라 하였다. 즉 시민들은 모두가 오직 Egypt의 신들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어느 누가 열심히 카토릭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기에 큰 불행이 초래된다는 예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포로니아는 로마황제의 명에 의해 희생된 것이 아니다.

본래 로마황제 Philippus는 기독교의 발상지인 Palestina 부근의 출신이다. 그는 산족의 두목으로서 로마군대에 입대하여 고급 장교가 되고 드디어는 당시의 로마황제까지 독살하여 그 자신이 독재자로서 황제의 지위를 244년 장악한 것이다. 그는 카토릭교에 대해 상당한 호의를 품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남들 모르게 카토릭교를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독재 기간인 5년간은 카토릭교도들에게는 도리어 매우 평화로운 시기이었다.

그는 민심을 얻기 위해 무술대회도 성대히 개최하는 등 정치적 면에서도 힘썼다. 그러나 그는 249년 출정(出征)중에 자기 부하에 의해 피살되었다.

당시의 로마황제는 군부에서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국력의 쇠퇴로 황제는 자주 바뀌었다. 서(西) 로마제국은 Commodas 황제 때부터 92년간 황제가 25명이나 바뀌는 정치적 군사적 혼란상을 보였다. 다수의 황제는 부하의 반란으로 피살되었다.

카토릭교가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은 때는 서기

64년, 96년, 107년, 118년, 202년, 236년, 250년 7차이다.

그래서 후세의 사학자들은 Apollonia의 순교를 250년으로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 이 점은 Dionysius 신부의 서한으로 그 근거가 확실하다.

아포로니아는 카톨릭교의 세례를 그의 부친과 함께 받았다. 그 어릴적 이름은 Dina이다. 그녀의 세례명이 곧 아포로니아이다.

그녀는 남다른 독실한 신앙자이었고 설교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 Alexandria 시민들을 카톨릭교로 입문시키는 데에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 어느 예언자의 모략으로 그만 그녀는 분노한 신민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시민재판으로 카톨릭교를 버리고 Egypt의 신전(神殿)에 사죄하며 즉시 개종하도록 강요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신앙심은 그러한 협박으로도 동요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더욱 격하여 그녀의 악골을 치고 고문으로서 발치를 하며 살을 자르며 큰 폭행을 가한 다음 그래도 번의치 않은 그녀를 화형(火刑)에 처했다.

아포로니아의 참혹한 최후에 대해 후일의 사가(史家)들이 과대할만한 찬사를 보낸 일도 결코 무

리는 아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믿음은 로마 법왕청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성자(聖者)로서의 영예를 얻게도 하며 동시에 다시 치통의 신 혹은 치과의사의 수호신으로서도 숭앙받게 된 것이다.

그녀는 유럽의 각지, 특별히 Espania, Belgium, Netherlands, Luxemburg, Italia, 독일과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 많이 숭경되고 있다.

성(聖) 아포로니아에 관한 그림과 조각은 유럽 각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우수한 것이 많다. 대체로 그 모습은 발치검자로써 치아를 뽑아 들고 있는 것 혹은 발치의 형벌을 그녀가 받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다른 성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있다.

명작으로 정평받는 그림은 독일의 브레슬라우시(市)에 있는 Michael Lucas Willmaun(1629~1706)의 작품이고 또 발치검자를 손에 잡은 그림으로서 정평있는 것은 로마시(市)의 소장품인 Carso Dolci(1616~1681) 및 Bernardino Luini(1480~1533)의 것이다. 한국에도 이 분이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이다. 물론 최초로 알려진 때는 1930년대의 초이리라.

綜 說

古代日本에의 大陸醫藥의 流入

金正均*

본고(本稿)는 일본인 자신들이 기록한 일본으로의 한국 및 중국의 의술과 의약의 유입(流入) 관계의 기록을 정리하여 그 개요를 살핀 것으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입장에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의사학 연구자 입장에서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 및 한국문화의 모국은 중국이다. 의학도 그러하다. 고대 일본의학은 한국인에 의해 배양된 것이었다.(三木 榮)

일본과 대륙과의 교통은 일본의 유물로써 추정하여 기원전 108년 전후로부터 확실해진다. 중국의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에 따르면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 건무중원(建武中元) 2년(57 A.D.)에 왜인(倭人)이 위(魏)의 낙양에 와서 왜의 노국왕(奴國王)이 사용할 금인(金印)을 광무제로부터 받은 기록이 있어 그 상호 문화의 교류를 증명하고 있다. 당시에는 동검, 동탁, 거울, 청동기 등이 일본으로 다수 수입되었다.

그후 문자가 전해지고 점차 의약과 치료법도 전해졌다. 유명한 진시왕의 명을 받아 불로장생의 명약을 일본으로까지 와서 구하며 결국은 일본에서 영주하게 된 서복(徐福)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전설도 남았다.

기원후의 2~3세기가 되면, 일본은 작은 국가들이 난립해 그들 사이의 싸움이 치열해짐에 따라 통일국가의 건설 움직임이 있게 된다. 3세기 초에 야마태국(耶馬台國)의 비미호(卑彌呼·히미코) 여왕

(女王)은 중국으로 사신과 공물을 전하였다.

4세기에는 대화조정(大和朝廷·야마토 조오메이)의 기초가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때에 중국은 후한이 명망하고 삼국시대를 거쳐 남북조시대가 되고, 한국은 신라, 백제, 고려의 순으로 건국이 된다.

고대일본의 대륙과의 문화 교류 및 그 접촉은 한국을 통한 것이 많으며, 궁월군(弓月君·유쓰끼노기미), 아지사왕(阿知使王·아지노노미)의 귀화, 왕인(王仁)의 도래 및 논어, 천자문의 도래, 기직희(機織姬·織物製造女工), 건축기술자, 화공(畫工)의 도래, 문자, 유교를 위시한 일반문화 등등 많은 수입이 곧 그러한 예가 된다.

의학부분의 고증으로는 414년 인교오천황(允恭天皇) 때에 천황의 질환으로 한국에 양의(良醫)를 구하니 신라의 금파진한기무(金波鎭漢記武)가 내일한 기록이 있다. 또 유우라꾸천황(雄略天皇) 때에 백제에 의사를 구하니 450년에 고려의 의사 덕래(德來)가 도입하여 나니와(難波)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후 대대로 나니와야꾸시(難波藥師)라 불리우며 의업을 계승시켰다고 전해진다. 또 554년에는 백제로부터 의박사(醫博士)인 왕유릉타(王有陵陀)가 채약사(採藥師·藥劑士)인 반량풍(潘量豐)과 정유타(丁有陀)를 동반하고 도입했고, 다시 602년에는 백제의 승려 관인(觀勒)이 의서를 가지고 도입하였다.

그후 다수의 의사가 도입했는데, 그들의 의술은 한국 독자의 것은 아니고, 중국의약의 중계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거기 관해서는 그 기록이 전혀 없기에 상세히 알 길은 없다.

* 本會 前會長

불교(불교의학)는 552년에 백제로부터 불상, 불구, 결론 등이 전래된 것이 시초이며, 그후 직접 중국으로부터도 전래되었다.

중국과의 교통은 오랜 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기록으로 의술이 처음으로 전해진 때는 562년, 오(吳)의 지총(知總)이 약방서(藥方書)인 「명당도」(明堂圖)와 약구(藥臼)를 갖고 도일한 때이다. 약방서는 당(唐) 이전의 서적이었던 것과, 또 「명당도」는 침구에 필요한 공혈(孔穴)의 그림이었던 사실 외는 명확하지 않다.

그 이후 중국의약을 배우기 위해 수(隋)에는 608년에 약사이던 에니찌(惠日)와 후꾸인(福因) 등을 유학시켰다. 이들은 15년간 배우고 623년 당(唐) 시대가 되어 귀국했다. 곧 이 때부터 견당사(遣唐使)가 있게 되기 시작하였다. 에니찌(惠日)는 해외 유학생의 효시이다.

당시에는 이미 일본에 마라리아, 나병, 두창 같은 유행성 질환이 유행되어, 593년 일본에는 비전원(悲田院), 요병원(療病院), 시약원(施藥院) 등의 국립의료시설이 탄생되었다. 성덕태자(聖德太子) 때이다. 또 불교의 영향으로 승의(僧醫)도 탄생되어 그들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불타에의 기도로써 기원하였다.

일본의 정치제도는 당(唐)의 문물 수입으로 정비되어 701년에 이르러 대보률령(大寶律令)이 제정되었고, 그 안에는 의질령(醫疾令)이 있어, 의사제도(醫事制度)가 정해졌다. 그 내용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궁내성(宮內省) 안에는 전약료

(典藥寮)를 두었고, 그밑에 대학(大學)과 국학(國學)을 설치해서 의학교육을 실시하며, 중무성(中務省)에는 내약사(內藥司)를 두어 조정의 약을 만들게 한 듯하다. 대학에 입학하는 생도는 일정한 관직을 가진 사람의 자제로 국한시켰다. 그리고 그 교육은 5개 분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였다. 우수한 학생은 각각 그 분야의 박사가 될 수 있는 제도이었다. 그들 의학생의 필수 수업 서적은 소문, 갑을경, 황제침경, 명당 등이다. 그러나 이상의 의사제도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실제로 시행되었던가 하는 점은 알 수가 없다. 그 일부는 14세기까지도 남은 제도이다.

일본의 유사이전의 외용약으로는 외상때에 참약새물의 노란색의 이삭을 발랐고, 화상 때에는 대합(蛤)을 껍게 태운 분말을, 또 진통제로서는 술도 사용되었다. (長尾 榮一)

다시 확실히 하는 점은, 이상은 일본인들 자신의 여러 기록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소개한 사실이다. 이 점은 우선 이해되면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의 여러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점은 여기서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인의 연구 발표는 한국인 연구자들로서도 참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 어느 면으로나 있을 줄 안다. 고대일본으로의 한국 치과의술의 유입 문제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견해가 현재까지는 일단 긍정적이나 그 사료(史料)가 충분하지 못하다.

綜 說

Silk Road의 醫史學的 研究를 위한
基礎知見의 調査와 그 綜合 (第2報)

李 漢 水 *

(승전), 552년은 돌궐(突厥·츄루그)의 건국의 해이기도 하다.

알타이(Altai) 산맥을 중국어로는 지금도 금산(金山)이라 하는데, 터키어로는 금(gold)을 「아루든」이라 한다. 이 점으로 미루어 알타이란 곧 터키어이었음을 추찰할 수 있겠다.

텐산(天山)의 북방과 알타이산의 남서방은 준가리라(Dzungaria) 초원으로 기마민족의 좋은 생활지이었다. 이 초원지대의 서쪽은, 남(南) 러시아의 초원들과 연속되었고, 발하시(Balkhash) 호(湖), 아랄(Aral) 해(海), 카스피(Caspi) 해, 그리고 블랙(Black) 해의 북부를 서로 잇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북쪽 길이다.

402년 유연(柔然)이 흥하자, 돌궐은 그 지배하로 귀속되어, 유연의 무기 조달을 위해 알타이 산맥의 남쪽에서 제철(製鐵)과 단야(鍛冶)의 노예로서 종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후 돌궐의 족장이던 토문(土門·츄멘)은 다시 세력을 얻어 철록(鐵勒)과 고차국(高車國)을 정복하고, 유연의 가한(可汗)에게 통혼(通婚)을 청하나 거절되어, 중국의 서위(西魏)에 구혼하여 드디어 장락공주(長樂公主)를 부인으로 삼게 된다. 이때가 551년이며, 토문은 결국 그 다음 해에 유연을 정복하여 돌궐제국을 건국한다. 곧 이것이 터키 민족이 국가로서 처음 세계사에 등장되는 때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적으로 확인된 터키의 조상은 돌궐이다.

유목민족은 일반적으로 문자를 갖지 못해 그들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돌궐은 그들의 문자를 갖았었다. 그들 문자는 해독이 가능

하게 되었고, 또 비문(碑文)의 출토로써 그들의 역사도 그 일부는 알게 되었다.

「위로는 푸른 하늘, 아래로는 어두운 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사이에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들 위에 우리 조상 무민하간과 이스데미하간이 즉위해 돌궐민의 나라를 법으로 다스렸네」하고 시작되는 호쇼·싸이담의 비문은 그 귀중한 연구자료의 하나가 된다.

돌궐은 그러나 곧 멸망하며,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의 당군(唐軍)의 패배도 있어 9~10세기에는 터키 민족이 중앙 아시아로 진출하게 된다. 현재도 중앙 아시아를 투르키스탄(Turkistan)이라 호칭한다. 이 말의 뜻은 터키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것이다. 본래 중앙 아시아에 거주하던 아리아(Arya) 민족은 동남으로 도주하던가 그들과 혼혈이 되었다.

10~11세기는 곧 중앙아시아의 터키화(土耳其化)와, 터키인들의 이슬람화(回教徒化)가 진행된 시대이기도 하다.

이슬람 제국의 압바스조로부터 독립한 나라들 중에 이란인들의 국가가 있었으니 그것이 사만왕조이다. 사만왕조는 수도를 부하라로 정하고 10세기에 이르러 이슬람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된다. 이 이란인의 사만왕조는 터키족의 남하(南下)를 저지하기 위해 아랄해의 동쪽인 시르강을 따라 방위선을 치고 타시켄트 부근에는 노예시장을 만들어 터키인을 체포하여 노예로 삼기도 하며, 또 이집트를 위시한 다른 이슬람왕조에 팔기도 하고, 군인으로서 교육시켜 그들과 동족인 터키인의 남하를 저지시키는 임무를 갖게 했다.

이러한 사만왕조의 정책으로 터어키족의 남하는 일시 저지되긴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노예이던 터어키인들은 결국 사만왕조 군부의 사령관이나 고관이 될 수도 있어 이것이 마침내 사만왕조 자체의 내부 붕괴를 유발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터어키족들은 다시 그러한 사이에 이슬람교도로 개종들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드디어 사만왕조는 999년 터어키족의 분파인 가루룩족에 의해 멸망 당한다. 가루룩족에 의해 건국된 것이 「가라·한」 왕조이다. 이때 다수의 터어키족도 이 왕조로 들어갔고 후일 셀주크 터어키를 세운 셀주크도 당시 이 왕조에 참여했다.

셀주크의 손자 도구틸은 1037년 드디어 압바스 왕조의 실권을 잡게 되며, 그들 셀주크 왕조는 국력을 확장시켜 중앙아시아, 시리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어 당시까지는 아랍군이 침공할 수 없던 아나토리아를 공격하여 빈잔틴 제국과 싸워 그 황제를 포로로 하게까지 된다.

하지만 셀주크·터어키도 오래 지탱되지는 못하고, 4개로 분할된다. 바로 이때인 1096년에는 최초의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어, 1099년 예루살렘은 탈환 당한다. 그러나 200년간의 8회에 걸친 그것도 결국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에 의해 퇴각당한다. 이 맘루크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으로, 그들은 아시아에서 팔려간 터어키인 노예 출신이다.

이 맘루크 왕조는 징기스칸(成吉思汗)의 손자 푸라그가 일한 전체를 평정하여 1258년에는 일한국을 세우고, 다시 압바스 왕조도 정복시키며 시리아로 진격했는데, 그때 몽골군이 팔레스티나로 침입하려는 것을 저지시킨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터어키 공화국은 1923년에 수립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오스만(Othman) 제국이다. 돌궐인의 혈통을 지닌 오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시작되었다.

예부터의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 의약교류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의 하나는 곧 갖가지 본초(本草·漢方生藥·藥材)의 원산지 내지는 그 주요산지에 관한 고증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여러 본초명이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동명이종(同名異種)으로 변한 예도 있겠고, 또 고서(古書)에 기재된 본초가 과연 현재의 동명(同名)의 그것과 동일한 품종인가 함에 대해서는 많은 고증이 필요될 미묘한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엄밀한 뜻에서 이러한 점에 관한 연구는 고생물학(古生物學) 발달에 따른 고증 없이는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록 논리(論理)는 그러하나, 하나의 참고로서 저자는 여기서 현재의 자료를 일단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 이들의 그 산지의 시대적 변천은 연구되어 있질 않다.

이란

감초(甘草·國老)

아프가니스탄

마황(麻黃)

파키스탄

감초, 마황, 목향(木香)

인도,

울금(鬱金), 결명자(決明子·초결명), 홍화(紅花·넛), 우황(牛黃), 생강(生薑·乾生薑), 사향(국노루배꼽), 목향, 봉선자(鳳仙子·봉선화씨) 서각(犀角·씨각·물소뿔), 연자육(蓮子肉·연밤·연)

버마

산조인(酸棗仁·뽕대초씨)

태국

계지(桂枝), 축사(縮砂), 소목(蘇木·다목), 의이인(薏苡仁·율무쌀)

말레이시아

아선약(阿仙藥), 곽향(藿香·배초향·방아잎), 정자(丁子)

캄보디아

축사, 침향

라오스

침향

베트남

계지, 축사, 양강(良姜)

대만

울금, 황백(黃柏), 아술(莪朮), 곽향, 치자(梔

子), 생강, 택사(澤瀉·쇠귀나물뿌리), 천문동
(天門冬·홀아비쑥), 빙랑, 용안육(龍眼肉), 양
강

오끼나와

해인초(海人草), 아슬

유럽(歐洲)

우황, 회향(茴香), 호유(胡荽)

이집트

홍화(紅花)

탄자니아

정자(丁子)

말라가시

정자

소련

감초, 사향, 인삼, 영양각(羚羊角), 녹용

중국의 신장성(新疆省)

감초, 홍화, 자근(紫根·軟紫根), 마황(麻黃)

티벳(서장성)

대황, 천마, 패모(貝母), 목향, 강활(羌活·강
호리), 사향, 영양각(羚羊角), 인진(茵陳·더
위지기)

청하이성(青海省)

감초, 대황, 백두옹(白頭翁·할미꽃), 황기(黃
耆)

채차 부언하면, 여기 기재된 본초의 산지는 1991
년 현재 알려진 것들이다. 따라서 고서(古書)나 옛
자료에 기재된 그것과 혼동되지 않아야 된다. 향목
류(香木類)에 속하는 20여종에 관해서는 더욱 거
의 불확실한 것 같다.

향목류는 예부터 동서간의 주요 무역품이었거니
와 동시에 치과부문에서 자주 사용되었기에 그 품
목명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원산지의 연구는
중요한 부분이다.

향목류(香木類)

송지(松脂·송진·瀝靑)

육계(肉桂)

계심(桂心)

계지(桂枝)

침향(沈香)

정향(丁香)

단향(檀香)

빈랑(檳榔)

유향(乳香·薰陸香)

몰약(沒藥)

안식향(安息香·복나무진)

소합향(蘇合香)

용뇌(龍腦)

아위(阿魏)

황매(黃梅·생강나무)

측백엽(側柏葉·측백나무잎)

백자인(栢子仁)

신이(辛夷)

천초(川椒·초피나무열매)

오수유(吳茱萸)

대복피(大腹皮)

지구(枳椇)

피과엽(枇杷葉)

오약(烏藥)

혈갈(血竭·기린갈)

노회(蘆薈)

호동루(胡桐淚)

다명(茶茗)

광의(廣義)의 실크로드로서의 해로(海路)라 함
은, 물론 학술적으로 그 어떤 엄격한 정의가 아직
은 내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의 관
례로서 지칭되는 일반적인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여기서 편의상 그 해로라 함은,
그 동단(東端)은 중국의 광저우(廣州·광주)로 하
며, 그 서단은 이란의 바그다드(Baghdad) 동남에
위치한 페르시아만의 아바단(Abadan)으로 일단
설정하면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해로의 개척이 육로보다 많이 뒤진 이유로는 조
선기술과 항해술의 발달 문제와 천문기상 및 지리
적 지식의 문제 그리고 항해중의 음식물 보급 문제
가 크게 원인되었으리라.

일찌기 실크로드의 육로의 코스에 관해서는 그 자세한 코스 내지는 경유지가 비교적 잘 연구되어 왔으나, 그 해로의 코스나 경유지에 관해서는 육로 보다는 아직도 덜 연구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 코스를 일단 여기서는 그대로 뜻하기로 하고, 그 주된 코스로는, 현재의 팡조우에서 하이퐁(Haiphong)을 거쳐 방콕을 들러 말레이시아 반도의 남단을 돌아 랑구온과 켈카타와 마드래스와 봄베이와 카라치를 지나 호르무스 해협의 북안에 위치하는 반다르압바스(호름즈·하르모치아)를 들러 아바단에 이르는 코스를 말한다. 물론 이 코스 중에서 사정에 따라서 기항지(寄港地)는 선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해로는 전체적으로 대략 적도(赤道)와 북위 30도 선 사이에 있다.

그리고 선박 왕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코스의 해류(海流) 상태는, 주로 남지나 및 보르네오해에 있어서는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뱅골만에 있어서는 시계방향(時計方向)으로, 아라비아해에서는 서쪽으로 흐른다.

강수량(降水量)은 해로의 거의가 비교적 많아

전년(全年·一年間) 1000~3000mm이다. 태풍은 주로 남지나 및 보르네오해에 있어서는 서쪽으로 불며, 뱅골만에서는 동남으로 또 아라비아해에서는 서북쪽으로 분다.

풍향(風向)은 연중의 12월을 보면 그 전체 코스에서 주로 북쪽에서 남으로 불고, 6월에는 그 전체 코스에서 주로 남에서 북쪽으로 분다. 또 계절풍(季節風)은 이 해로가 북반구에 속하니만큼 동계에는 시계방향이며, 하계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결 문

저자는 이른바 실크로드를 통한 예로부터의 동서 의학의 교류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할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여러 사학적(史學的) 지견들, 특별히 파미르 고원 이서(以西)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다.

본고에 언급된 지역일대는 각종의 그들 언어 해득의 어려움과 그 관계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학술 연구에 많은 장애가 있으나 금후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綜 說

齒科醫學 分立의 歷史

金 官 興*

치과의학이 일반 의학으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그 기치를 올린 때는, 한국의 경우는 무현자료상 1488년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조 9대의 성종(成宗)은 제주(濟州)의 목사(牧使) 허희(許熙)에게 명하기를, 「……치목비(齒目鼻)의 여러 통처(痛處)는 특별히 충인(虫人)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만큼, 남녀를 따지는 일없이 선발해서 서울로 보내라」하고 있다.

곧 이것이 한국의 경우는 치과의술의 특수성이 지적된 최초이거니와, 또 치과치료를 전문으로 삼는 사람이 벌써 그 당시에는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충인(虫人)이라 불렀던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실록에 의하면, 치과전문 의녀(醫女)에는 장덕(張德)과 귀금(貴金)의 기록이 나오고, 또 이륙(李陸 1438~98)의 「청파극담(靑坡劇談)」과 성현(成俔 1439~1505)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따르면, 치과의녀인 분이(粉伊)와 옥매(玉梅)가 있던 사실과, 다시 제주도에서 최초로 치아속의 벌레를 잡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은 여자인 가씨(加氏)이었던 사실도 기록되었다.

한국 최초로 의녀제도가 있게 된 때는 1406년이다. 태종(太宗 1401~18)때에 제정된 것으로 이것은 중국의 제도를 본따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제도가 세종(世宗) 때에는 크게 성공하여 행정적으로 많이 확충도 되었으나 점차 여러가지 불미한 일들이 있게 되어 쇠퇴하였다. 따라서 치과의녀에 관한 실록의 기록도 1474년 이후로는 찾을 수 없다.

서양의 경우 치과의학 분립의 기운은 서서히 15세기 말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치과전문서가 최초로 간행된 때는 그 저자명이 알려지지 못한 것이지만 1490년으로 스위스의 바젤(Basel)에서 출판된 매이다.

그 내용은 회랍과 아라비아의 의학서를 번역한 것이나 그것들은 치과부분만을 다룬 것이다.

그리고 이어 1530년에는 전기한 책과 동일한 종류의 치과의학 서적인 Zahnarzneybuchlein이 독일의 Michael Blum에 의해 인쇄되었다. 이 서적도 역시 그 저자의 이름은 확실치가 않으나, 그러나 이 책의 초판이 간행된 때는 스위스에서 출판되었던 책의 연대와 동일한 1490년이다. 즉 2권의 치과전문 서적은 모두가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 전자는 라틴어로 되었고, 후자는 독일어로 된 책이다.

그 이후에 치과전문 서적으로서 그 저자명이 명확한 것은 1544년에 출판되었다. 독일인인 Walter Hermann Ryff(1570 사망)가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써 집필한 의서이다.

이어 프랑스와 이스파니아 등에서도 치과전문 의서가 최초로 각기 1582년과 1557년에 출판되었으니, 유럽의 경우 치과가 일반 의학(외과)으로부터 분립(分立)한 때는 곧 15세기말부터의 일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연히도 한국의 경우와 서양의 경우가 동일한 연대인 점으로서 매우 흥미롭다.

치과의사 자격시험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있게 된 때는 1700년이다. 먼저 프랑스에서 시행되었다. 당시 이미 Pierre Fauchard (1678~1761)는 외과치과의사의 이름을 표방하며 개업을 하였고, 그는

* 서울·김관홍치과의원

1728년에 「외과치과의사」(Le Chirurgien Dentiste)라는 2권의 책을 간행했는데 본서는 당시의 대표적인 치과의학 서적일 뿐더러 개업한 치과분야 전문의사의 효시이기도 하다. 당시의 프랑스 치과의사의 개업시험 제도는, 새로 치과의원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파리지(市)에서 임명하는 3명의 시험의원(모두가 외과의사)이 출제하는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는 제도이었다. 여기서 확실히 할 점이 하나있다. 그것은 그 당시까지는 치과전문의사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곧 dentateurs라는 치과전문 기술자가 프랑스에는 있었고, 발치와 간단한 치과분야의 치료는 이발사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치과분야 전문의사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는 1700년부터 개업의사 자격시험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치과의학 전문교육기관(치과대학)이 최초로 독립되어 미국에 설립된 때는 1840년이다. 1839년에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의 창립 안(案)이 Baltimore 시(市)의 개업의사 Horace H. Hayden(1769~1844)에 의해 계획되어 그 다음해에 주의회(州議會)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당시의 그것은 일반 의과대학과 완전히 동등한 자격과 동일한 사회적 대우를 갖추게 되는 내용의 설립인가이었다.

Hayden은 1804년부터 Baltimore 시(市)에서

개업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병원에 야간학교를 열어 치과학생을 양성하였고, 1837~38년 2년간은 Maryland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우선 치과강의를 간단히 시작한 것이 동기가 되어, 그 대학에 정식으로 치과학 강좌를 개설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학교측이 대학의 재정난으로써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는 거절을 받게 됨에따라, 따로 독립하여 치과전문 교육기관을 신설케 된 것이다.

본 치과대학에 부속병원이 개설된 때는 1846년이다. 초대교수진은 4명이고 외래강사는 15명, 수업일수는 1년에 4개월 이상하게 규정되었으며, 졸업할 때의 학위는 Doctor of Dental Surgery이다. 본교는 제1회로 5명을 입학시켜 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학의 운영은 독지가의 회사금으로 충당되었다. 하지만 시중의 개업의사들의 운영 방해로써 순조로운 발전은 여의치 않았다. 당시는 개업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치과기술을 전수하면서 수업료를 받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수입 감소로, 대학교의 운영을 찬성하지 않은 까닭이다. 해서 이 치과대학은 1년 평균 15명 정도의 졸업생을 계속 창립후 25년간 배출시키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국 최초의 치과교육기관이 창설된 때는 1922년으로 야간 2년제 과정이다. 이것이 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이다. 그 설립자는 일본인 나가라 다쓰미(柳樂達見)이다.

綜 說

Dr. Willoughby D. Miller와
Dr. Green Vardiman Black

李 時 雨*

밀러(1853~1907)는 곧 근대 구강세균학의 최초의 개척자이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아렉산도리아 출신이다. 처음 그는 미쉬간 대학의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영국 유학을 떠나 예진바라 대학을 1년간 다니고 다시 독일의 벨르린 대학에서 수업하며 이학자(理學者)가 되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인 치과의사 친지의 우연한 권유로 벨르린에서 자신의 뜻을 바꾸어 1877년 귀국하여 곧 켈실베니아 치과의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학하여 켈실베니아 대학의 치학부를 1879년 졸업했다.

졸업후 재차 벨르린으로 가서 로벌트 코흐(Robert Koch 1843~1910)의 지도로 세균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는 1880~1890년간 독일 황실의 치과 주치의사로 근무하였고 한편으로 그는 때때로 치과병리학 내지는 구강세균학 관계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논문들 중에서 유명한 것은 1883년의 「우식에 미치는 세균의 영향」이며 이어 발표된 것이 「구강내에 있어서의 발효」이고 또 「구강내에서의 발효와 우치와의 관계」라는 논문이다. 이들 3개의 논문은 곧 그의 화학세균설이기도 했다.

밀러의 주장은 그 때까지 이미 알려져 있던 레벨(Leber)과 롯텐스테인(Rottenstein)의 주장을 발전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벌써 당시에는 우식이란 구강내의 산(酸)으로써 에나멜의 파괴가 있게 되며 거기로부터 세균이 침입되어 덴틴의 붕괴가

생긴다는 주장을, 밀러는 더욱 깊이 연구하여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는 구강내의 산은 모두 음식물의 잔편(殘片)으로써 발생된다 하고, 거기에 세균이 작용하여 발효됨으로써 우식증이 진행된다고 단정하였다.

그는 이 주장을 요약하여, 「함수탄소 없이는 산이 없고, 산이 없이는 우식증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밀러는 자신의 여러 연구를 기초로 1889년 벨르린에서 「구강세균학」을 간행했다. 이 책의 원명은 Die Microorganismen der Mundhöhle 이다. 페이지 수는 295페이지에 달한다.

그리하여 벨르린 대학에서는 그를 치과학 교수로 임명하여 그후 20여년을 근무하였는데, 그의 모교로부터 수차에 걸쳐 귀국해줄 것을 간청하여 귀국한 끝에 그만 그해 맹장염으로 별세하였다. 나이 54세 때의 일이다.

그가 생전에 발표한 논문은 87개이다. 그의 공적을 찬송하는 흉상은 1915년 12월 8일 그의 고향인 코롬비아의 주립대학 구내에 세워졌다.

근래에 이르러 구강세균학의 놀라운 진보로써 그의 학설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학설은 치과의학 발달과 더불어 아마도 오래오래 역사의 불멸의 탐으로 남을 것이다.

블랙(1836~1915)는 치아해부학과 병리학과 치료학 그리고 치과용 기계의 개량에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의 고향은 이리노이주의 윈체스터이

* 서울·李時雨齒科醫院

다. 17세 때에 의학에 뜻을 품고, 21세엔 치과의학에 뜻을 가져, 정규의 교육은 없었으나 치과기술을 습득하여 1864년부터 개업하였다.

하지만 그는 독학으로, 1886년부터는 치과잡지인 「아메리카 치과의학」의 집필의원으로서 활약할 만큼 그 실력이 인정을 받았다. 그는 1891년 「넬탈 코스모스」지상에 치아충전에 관한 귀중한 논문을 연재했고, 이어 이 잡지에 예방확대(豫防擴大)의 원리를 해설하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 논문은 5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당시의 그의 주장과 이론은 크나큰 파문이었다.

그는 이어 또 아말감의 연구에 몰두하여 그 새로운 처방을 처음 공표한 것이 1896년이다. 곧 그것은 치과치료학의 혁명이기도 하였다. 당시까지의 아말감 충전은 재료의 결함이 많아 시비가 계속되던 시기이었다.

그의 저서는 1890년에 「치과해부학」, 1908년에 「치과치료학 상·하」, 1915년에 「치과병리학 각론」으로 간행되었다.

그는 교육자로서 1870년부터 10년간 미조리 치과의학교에서 병리학 교수로, 또 1883~1889년까지는 쉬카고 치과의학교의 병리학 교수로, 다시 1891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치과대학에 전근하여 치과병리학 교수로 활약했고 그후 1897년에는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그는 한편 또 1893년 치과보수교육에 유의할 필요성을 역설하여 그러한 목적의 국립교육기관의 창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3년에 이미 그는 학술용어의 제정을 위한 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의 흉상은 A.D.A. 사업으로 1918년 쉬카고의 링컨공원에 세워졌다.

綜 說

齒醫學이 追求하는 方向

任 慶 彬 *

이 글은 논문이 아니고 상식에 바탕을 둔 치과분야의 이야기에 해당 된다. 때문에 굳이 추측을 곁들이지 않아도 큰 불편이 따르지 않는다.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필자로서 대신하려 한다. 그것이 아니라 산만해질 염려가 있어 가능한 한 피하려 한다. 그리고 지루함을 피하려 이야기를 다섯부분으로 나누었고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연재하려 한다.

그러나 기회가 여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각 부분을 독립시키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놓으려 시도해 본다. 그 결과가 지면을 아끼면서 치의사학에 흥미까지 유발시키는데 이른다면 금상첨화에 해당 될것이다.

뜻이야 이상과 같았지만 워낙 미천한 지식밖에 갖지 못하여 차라리 지루하더라도 원고전량을 게재하는것만 못할까보아 적지않게 조심되는 것을 실토하게 된다. 이것이 모두 좁은 소견의 탓인바 강호제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삼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I) 서언

치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주목하는것은 마치 미

래학의 섭렵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의 치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 여기에 이르면 치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미래학에 국한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치의학의 추구하는 방향은 당연하다는 듯 의학과 유사하게 임상적효과의 극대화에 치우쳐 있었다. 이같은 관계로 임상적 효과가 그리 신통하지 못하던가 오류가 발견되면 그 술식은 물론 추구하던 방향마저 지체없이 파기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방향에 입각하여 임상적 효과가 보다 두드러지거나 오류가 시정된 또다른 술식이 당당하게 들어서는 과정을 서슴없이 되풀이 하였다. 그것이 곧 치의학의 발전으로 수용되어 이제는 관행처럼 자리잡게 된듯하다. 그 결과 치의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술식의 명멸은 다반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치의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추구했던바 방향은 동서양의 현격한 차이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달리 주목되지 않았다. 오직 그때마다 존재하던 술식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筆者注 1)

동서양의 생명현상에 대한 관점은 처음부터 달랐으므로 동서양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던 시기에는 의학도 나름대로 변천 되었다. 그러나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대에 이르러 동서양의 의학이 교류에 의한 결과로 보이지 않음에도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다.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동양의학 즉 한방의학에 주목한다. 동양의학은 사상적 바탕을 음양오행설에 두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대자연은 우주로 인체는 소우주로 보고있다. 그러니까 대자연이 삼라만상의 오묘한 조화속에서 생겨나 유지되듯 인체도 축소된 삼라만상의 조화속에서 탄생되며 조화의 상태가 깨어지지 않을때 정상상태를 유지한다고 믿었다. 때문에 자연법칙에 의거 인체의 전체적인 조화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였다. 따라서 침과를 비롯한 각과가 별도로 존재하기보다 의학이란 커다란 하나가 존재하는것이 당연 하였다.

*신라치과의원장

그 결과 전신의 이상이 구강내에 일으키는 변화가 의학적으로 주된 관심사였다. 때문에 이에따른 의학적 구강관은 독록 하였다. 이런 한편 의·식·주라는 생명유지의 원초적인 중요성에 입각한 인식상의 구강관을 별도로 지니고 있었으므로 생과사가 관련된 엄청난 차원에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이렇즈음 다음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지나게 되었을 구강관은 어떠하였을까.

인체에는 때가되면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 세월이 지나면 어쩔수 없이 나이가 들게된다.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목소리가 달라지고 수염등이 나온다. 여성의 경우 나이어린 소녀때와 달리 적령에 이르면 몸매에 아름다운 변화가 따른다. 그러나 누구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잡히고 마침내 흰 머리카락이 나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강내 유치는 생후 때가되면 맹출한다. 또 발육하는 도중 때가되면 이갈이를 한다. 늙으면 무치악의 상태가 되는것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 변화가 따른다. 이로써 구강도 때가되면 변화가 따르는 신체의 일부로 인식될 여지가 마련된 셈이다. 이 인식이 고정되면 또 하나의 구강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나고 치의학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명현상을 진화론이나 창조설에 뿌리를 둔 서양의학에 주목한다. 앞에서 서양의학이 「히포크라테스」대에 이르러 동양의학과 거리가 좁아지는 모습은 흥미를 자아낸다고 언급한 까닭이다. 합리적인 실험의학의 시조라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의학의 생리학을 관찰하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의 생리학 만큼은 천문학의 발달로 유래된 자연철학설을 도입하였던 관계로 인체의 생리를 동양의학과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그의 치료원칙도 자연(Physis) 즉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체내에 간직된 병을 치유하려는 힘 그러니까 자연치료의 능력조장에 두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학과 전혀 별개의 의학이라 할 수 없는 일면이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의학이 약리학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양의학에서 음식물의 섭취는 생명유지의 기본에 해당한다. 축소된 삼라만상의 조화속에서 얻어진 인간의 정상성을 보강하려거나 깨어진 정상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 이와달리 「히포크라테스」는 음식물 섭취의 한단계 위라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통하여 자연치유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도모하고 있다. 약물은 체내에 반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되어 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설시키기 위하여 하제·토제·이뇨제등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physis는 “식이요법”으로 증진 시키고, 병인은 배설을 통하여 제거 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병인의 배설을 위하여 약물이 투입되니까 결국 약물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약물사용의 목적에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 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과학적인 실험과 조제를 거쳐 일정한 약리작용능력이 있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일정한 질환을 치료하거나 일정한 증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약물의 사용목적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서양의 약리학 수준은 안타깝게도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때문에 생리학만큼은 자연철학에 바탕을 두었지만 아무래도 동서양의 학간에 근소한 차이는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두개의 직선이 한점에서 작은 각도로 출발한 초기에는 두 직선간의 간격은 미미하다. 그러나 멀리까지 연장되면 그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진다. 이와 비슷하게 「히포크라테스」대에 이르러 모처럼 간격이 좁혀졌던 동서양의 의학이었지만 아쉽게도 교류없이 또다시 나뉘는대로의 길을 걷게 되므로 더이상 거리를 좁힐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서양에서 「히포크라테스」대에 이미 해부학·생리학·약물학·병리학·진단학이 나뉘어 연구되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경험에 의거 임상각과에 대한 진단 예후및 치료방식이 나뉘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physis의 힘을 증강하려는 목적으로 외과적 요법도 간간히 시행 되었다. 그러니까 이에 힘입어 장차 치의학이 분화될 기운도 성숙되고 있던 셈이다. 또 그 자신 「크니도스」학과와 「코스」학파를 두루 섭렵 하였으므로 의학에 대한 사변과 임상적 지식을 고루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의 도덕적 태도 즉 의사의 윤리적 사명까지 확립할 수 있었다.

물론 동양의학이 인체의 여러부위를 골고루 다루지 않은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약물을 사용하는등 서양의학의 외과적처지가 발달하기전 처치방식과 비슷 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게될 것이다. 어째서 다음과 같은 이론이 성립되었는지 잘 알수 없지만 아무튼 인체에는 육장 육부가 존재하는데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뻗어 있다는 경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또 육부와 육장을 연결하며 육부 상호간, 육장 상호간을 연결한다는 낙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 둘을 합하여 경락맥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경락맥이 체표와 연결되어 있다는데 이 부

분을 경혈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경혈은 육부나 육장이 존재하는 부위와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육부나 육장 어느곳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전혀 다른 부위에 필요로하는 시술이 가해지는 경우가 생겨난다. 따라서 그 시술과 효험을 목적하게 되었을때 놀라게 되는것은 당연하다.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상악 치아의 통증을 제어하려 양발달제 발가락의 외측근처에 침을 놓는다. 하악 치아의 통증을 제어하려 양손 첫제와 둘째 손가락 사이에 침을 놓는다. 치통과 관련된 경혈이 해당 치아가 존재하는 부위와 전혀다른 인체의 표면에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와같이 경혈을 따라 침·뜸·지압등을 치료의 수단으로 삼아 외과적 처치를 가하지 않고 놀랍게도 인체의 정상성을 회복 시키려 도모하고 있다. 때문에 체표의학이라는 별명과함께 오로지 인간에게만 효험이 있는 인간의학이라는 별명이 따르고 있다.

특히 경혈이 전신의 체표에 분포되어 있고, 수족과 목뒤부분에 분포된 경혈이 임상적 기여도가 높아 인체를 장부별로 나누어 국소적으로 관찰하는것이 그 이론 체계상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해부학은 경락맥의 확인이나 새로운 경혈을 찾기위하여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미 경혈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 상태이거나 많이 발견되어 있다. 특히 침의 반응에 독특하게 민감한 사람의 신체상의 반응을 통하여 경혈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 결국 경혈을 찾기위한 해부학의 필요성은 그리 절실하지 않게된다. 이러한 동양의학의 특성상 임상각과를 부위별로 갈라 놓으면 오히려 시술상의 불편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치의학이 분화되어 독립분과로 분리되는것이 서양의학보다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위에 질병의 증후를 없애거나 인체의 지구력을 보강시킬 수 있는 약물의 처방과 약제가 무수할 정도로 마련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내공의 기를 모으는 여러가지 방식도 있다. 이 정도로 지난날 인간의 보건과 관련하여 큰 아쉬움은 없는듯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존재하는 여러술식의 이론적 체계화가 요구된다면 그것에는 수궁할 수 있겠다. 때문에 굳이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지 않더라도 실제에 있어 효험이 있으므로 오히려 또다른 술식의 발견과 개발이 요구되는 셈이다. 물론 의학의 사변적인 면도 오래전에 고도의 수준에 달하여 大醫나 心醫의 경지에 이르도록 권장되고 있었다. 그 결과 한때 자연법측에 이론적 기저를 두기는 마찬가지였던 동서의학중 한방의학은 꾸준히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똑같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이론의 뒷받침하에 나름대로 경이로운 술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며 맥락조차 이어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게 변모된 동서양의학의 특성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동서양의학의 특성속에서 동서양의 치의학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분야이든 발전기에는 그 하나하나의 변화는 획기적인듯 보이면서 세분화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전문화 단계를 밟게 된다. 이 단계까지는 해당분야에 활기가 그득하며 외부로부터 각광까지 받게된다.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전문화 단계에서 여러가지 출중해보이는 묘방이 속출하게 된다. 때로는 해당분야 종사자들도 감탄하게 되지만 결국 해당분야가 추구하는바 방향을 위한 한가지 응용수단에 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비로소 전문화·지엽화·해당분야발전간의 삼각관계

를 숙고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분야에 추구하는 방향의 재 검토가 따르기도 한다. 그후 흔히 세분화의 과정이 또다시 반복된다.

치의학은 어떠하였을까.

오늘날을 풍미하는 치의학을 서양치의학이라 하여도 무리는 없다. 이 서양치의학이 약 260여년전에 태동되었다는 주장이 나와있다.²⁾ 이 주장이 용허될 경우 260여년이란 기간에 유의할 이유가 따른다. 얼마간의 오차를 감안 하더라도 치의학이 시

筆者注 2)

1960년대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프랑스의 「피에르·포샤르」(Pierre Fauchard)가 서양치의학의 시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포샤르」기념사업회도 존재하고 있다. 물론 당시 치과대학생 이었던 필자도 대학교에서 치과 의과학 강의를 통하여 위와같이 배운바 있다.

작의 단계를 거쳐 겨우 전문화하려는 단계를 벗어나기에도 흠족한 기간일 수 없는 까닭이다. 즉 한 분야 학문으로서는 아무래도 미천한 역사밖에 지니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또 그 오랜 역사를 지닌 의학이 서양에서 19C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것으로 미루어 볼때 치의학도 발상기에 관계없이 그 본격적인 발전기가 오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치의학의 발자취는 변천과 정중 보잘것 없는 오류들이라하여 너무 쉽게 버리므로 결국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바가 무엇이었는지 가늠조차 어려워지게 된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현존하는 가장 발전된 술식 즉 본격적 발전기의 일부 흔적만 남게 되었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분야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당하였는데 당시의 능력이나 수단상의 뒷바침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해당시기에 능력이나 수단은 구비되어 있지만 추구하는바가 이들을 필요로하지 않았거나 이상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것은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지난날 치과계가 추구하던

방향이 훌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웁게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버려진 경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비록 지난날 치과계가 추구하였던 방향이라 하여도 무조건 저버릴 수 없게 된다. 각도를 바꾸어 지난날 치의학이 추구하던 방향이 보잘것 없었더라도 똑같은 추구가 되풀이되는것을 방지하는것 또한 의미가 대단하다. 그런 만큼 시대에 따른 치의학의 추구하는 방향들은 알알이 주어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에 의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치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자체가 재고되어본 기회나마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까닭이다. 나아가서 오늘날 치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고착화 하고 전문화를 고집하며 굳히려는것 자체가 오히려 치의학 발전에 걸림돌은 아닐는지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는 까닭이다.

따라서 시대에 따른 치의학의 추구하는 방향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은 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마땅하며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게 된다.

綜 說

日本の 19世紀 前半까지의 齒科醫學 略史

洪 禮 杓* · 金 聖 男**

한국 치과의학사 연구자들로서 이웃나라 일본의 치과의학 발달사를 이해함은 어느 면에서나 크게 참고될 것이기에, 필자는 여기서 주로 그 19세기 전반까지의 치과의학 발달의 개요를 취급키로 하였다. 다시 말하여 일본의 에도가와(江戸)시대까지로서 1861년까지의 치과의학을 약기한다.

일본의 경우 처음으로 의사제도(醫事制度)가 확립된 때는 701년이다. 그 법령은 다이호오리쓰레이(大寶律令)라 하여 율(律) 6권 그리고 영(令) 11권으로 된 것이다.

그 중에서 의술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의학을 4개의 분과로 나누고 있다. 곧, 체료(體療·内科), 창종(瘡腫·外科), 소소(少小·小兒), 이목구치(耳目口齒)의 4개의 분과이다.

일본 최고(最古)의 의서인 「이신히오」(醫心方)는 984년에 되었다. 30권으로서 그 저자는 단바야스노리(丹波康賴)이다.

이 의서의 저자는, 전해지는 말로, 중국 후한(後漢)의 영제(靈帝)의 후예라 하며, 900년경에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되었다. 그는 황실의 주치의사까지도 되었다.

「이신히오」(醫心方)에는 치과 관계의 질병으로서 31종이 기재되어 있다.

緊脣生瘡	脣 生 核	脣 里 腫
兔 欠	脣 面 瘡	口舌生瘡
口舌出血	歐 血	吐 血
睡 血	口中爛痛	口 吻 瘡
口舌乾焦	口 臭	張口不合

舌 腫	重 舌	懸 雍
卒長口病	風 齒 痛	齲 齒 痛
齒 碎 壞	齒 動 慾 脫	齒 黃 黑
齒 敗 臭	齒 斷 腫	齒斷間出血
牙 齒 痛	牙齒吸湧出	齒 齦
齦 齒		

일본에선 19세기 전반까지 치통요법으로서는 주로 약물의 사용, 구(灸), 낙철법(烙鐵法), 부적(符籍)의 사용, 발치를 하였다.

그러나 충전, 금관 혹은 계속치(繼續齒)는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충의치의 제작은 꽤 오랜 예부터 특별한 발달을 보여주었다.

충의치의 상(床)은 회양목(黃楊)으로 조각 조제하고, 인공치아로서 전치부위는 상아, 동물의 뼈, 또는 납석(蠟石) 등을 조각하여 조제하고, 구치부위는 조각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치아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이 금속제의 못을 박아 그것들이 서로 상하로 교합이 되도록 하였다.

목재인 충의치의 유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마도 16세기의 것으로, 여승(女僧)이 사용했던 것이다. 그것은 전치를 목재로 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아직도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목재의치의 유물은 100여개에 이른다.

유독 일본에서 목재의치의 제작 기술이 발달된 점은, 아마도 불교미술의 발달로 초래되었던 것 같다. 일본의 경우는 구중입치사(口中入齒師·고오주

* 서울·홍례표 치과의원

** 서울·한신치과의원

우이레마시)라 불리운 기술자가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다. 연대적으로 16세기에는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아직도 분명치 못한 것은, 그들의 신분이 매우 낮았기에 상세한 그들에 관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이다.

발치가 일본에서 서양의술로써 처음으로 시술된 때는 19세기 전반이다. 그 이전까지는 회양목(黃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elevator를 치은낭으로부터 압입(壓入)시키면서 동시에 목제의 망치로

그것을 쳐서 발치한 것으로 추정하고도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아마도 한국으로부터 전해진 듯 싶으며, 그 때에 사용된 망치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예부터 일상 이용하던 팔랫방망이를 모방한 그와 매우 유사한 내지는 동일한 것이었던 것 같다. 이 부문의 사실 여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으로 최초로 서양 의술이 전해진 때는 1543년이고, 미국인 치과의사가 처음으로 도일(渡日)한 때는 1860년이다. 그의 이름은 William C. Eastlak이다.

綜 說

東西醫學의 地理的區劃 問題

李 漢 水*

미끼·사카에(三木 榮)는 1965년 그의 저서 「醫學史研究의 一元的 體系」에서, 「동방문화·서방 문화를……(중략) 주저없이 간단 명료하게 묻는다면, 그 구획을 대체로 동경(東經) 80도 선에서 동과 서로 나누면 어떤가 라고 대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이 구획선은 불교의 발상과 그 발달의 지리적 중심지역들을 동서로 구분할 수 있는 선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불교를 큰 배경으로 삼아, 그 영향을 질게 받은 동양의학은 동경 80도 선의 동쪽 지역에서 발달된 의학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이 선의 서쪽에서 발달된 의학을 서양의학이라 하는 것이 옳으리라 본다고 매우 조심성있게 언급하였다.

의사학에서 동서의학의 그 지리적인 구획을 명확히 설정함은, 학문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지극히 기초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동서의 의학이 각기 다른 종교의 큰 영향을 서로가 받으면서 발달되어 현재에 이른 점을 확실히 긍정한다면, 그 전제하에서 이 구획의 학문적인 설정은 꼭 있어야 옳으리라.

필자는 1988년 출저 「치과의사학」에서 이 구획선을 북반구(北半球)의 동경(東經) 70도 선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 이 견해는 앞서 언급한 미끼·사카에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필자는 그 구획선을 동경 80도가 아닌 70도로 설정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불교의 유적지로서 정설(定說)이 되어있고, 또 불타의 편력지들을 조사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동경 80도의 선 이동(以東)

에만 위치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테면 아잔탄 석굴암이나, 에로라 석굴암은 동경 75도 선상 부근이다. 사위성이나 산치대탑도 역시 80도 선의 이서(以西)에 위치하는 것이다. 아소카왕의 유적들은 70도선까지 설정해야만 그 모두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필자는 동경 70도 선을 보다 적절한 구획선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동경 70도 선은 인도대륙 서단인 카라치와 봄베이와의 중간을 통과한다.

그런데 필자는 개인의 1988년 이후의 연구 결과, 이상의 개인의 의견을 다시 수정함이 보다 옳은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필자는 동서의학의 그 지리적 구획을, 북반구의 경도(經度)와는 일체 상관없이, 이란의 이란고원 서남쪽을, 다시 말하여 카스피해의 남쪽인 엘부르즈 산맥(Elburz Mts)의 서남으로부터 주행(走行)되는 재그로스 산맥(Zagros Mts)으로 설정함이 보다 정확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재그로스산맥은 티그리스강(Tigris R)의 동측을 따라 동남으로 주행하며 다시 페르시아만의 동측 해안선과 평행되게 주행하면서 파키스탄과의 국경선 근방까지 이르는 높은 산맥이다. 이 산맥 동측에 이란고원과 다시트리카비르(Dasht-iKavir) 사막이 위치한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이 산맥의 동측이 된다.

이 재그로스산맥을 경계로 삼아, 그 서쪽은 셈(Shem)족의 세계이고, 그 동쪽은 페르시아족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 本學會 前會長

페르시아인은 곧 인도·유럽 어족(語族)이다. 인도인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그리스족과 동일한 계통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최초에는 중앙아시아와 텐산산맥과 쿤룬산맥 사이의 타림분지에게까지도 거주하였다. 이란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투르키스탄 등지에도 그리스인과 동일한 계통의 이 페르시아인이 광범위로 거주했던 것이다.

페르시아는 일찍부터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으나, 주목할 점은 그들의 종교이다. 그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이다. 곧 음양교 또는 배화교라 호칭되는 것으로 다신교(多神敎)이다.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Hindu)도 그리고 불교도 역시 모두 다신교인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재그로 스산맥 동쪽의 여러 종교는 그 농담(濃淡)의 차이는 있으나 다같이 생명 윤회(輪廻)의 사상이 큰 기저(基底)를 이루고 있고 그것은 의학분야에도 그대로 깊은 영향을 끼친 점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종교적 측면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의사학적으로 명쾌하게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그 논지가 정연하게는 본고에서 서술하지 못하나, 우선 이 새로운 견해에 관해 일단 발표한다.

大學教材研究 I.

西洋 中世齒科醫學史의 整理와 그 要點

李 漢 水 *

본고는 치과대학 의사학 강좌의 참고 내지는 그 교재의 새로운 계속적 확충과 연구를 위해, 서양의 중세치과의학을 총체적으로 새로 정리하여, 그 중요한 점들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의 대학 실정은, 그 강좌에 배정된 시간의 심한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기에, 그 타개책의 새로운 연구도 역시 시급하다.

I. 중세 치과의학의 여러 배경들

일반 사가(史家)들은 기원 4, 5세기부터 14, 15세기까지의 약 천년간을 중세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西) 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동(東) 로마제국의 멸망까지를 뜻하기로 한다. 곧 476~1453년까지 이다. 1453년은 단종(端宗) 원년이다.

서양 중세의 치과의학사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사라센(Saracens) 문화의 탄생이다. 즉, 7세기초 아라비아의 예언자 마호메트(Mahomet 570?~632)이 창시한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삼는 종교운동에 부수되어, 사라센사람과 그들이 정복한 민족들 사이에 형성된 사라센문화이다.

사라센문화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의 발달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창한 지식의 계통화를 꾀한 과학적인 연구는 사라센문화에 이르러 비로소 실현되었다. 고대회랍의 치과의학을 포함하는 의학은 회랍의 원서 혹은 그것이 시리아어로 번역된 의서로부터 그 모두는 아라비아어로 번역되어 그것은 그대로 사라센문화 속에 동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7~8세기엔 그 발달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비록 이슬람제국의 국력은 후일 쇠퇴되어도 그

문화는 계속 명맥을 이어, 각처에는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종합대학으로서 완성되었다. 특히 에스파니아의 코르도바(Cordova) 대학에는 기독교 세계의 학생들까지도 입학이 허용되어 이것이 유럽으로 아라비아의 철학을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의 파리대학이나 옥스포드대학 혹은 이탈리아의 여러 대학과 또 갖가지 유럽 사상계(思想界)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사라센의 종합대학은 유럽의 대학들보다 약 1세기나 앞서서 일찍부터 설립된 것이다.

치과의학에 있어서는 아라비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비센나(Avicenna 혹은 Ibsinna 980~1037)를 위시하여, 라제스(Rhazes 860~932), 아불카시스(Abulcasis 1050?~1123) 등의 석학을 배출하여, 그들은 주로 치과의학을 포함하는 임상 의학을 연구하였다. 로마시대 말기의 가렌(Claudius Galen 또는 Galenus 131~210) 이후로 거의 그 발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던 치과의학도 다시 그 부활을 보게 된 것이다.

수세기간의 문운(文運)의 쇠퇴 속에서도 고대회랍의 치과의학이 그 명맥을 계승할 수 있었던 점은, 전적으로 네스토리우스(Nestorius) 파(派)의 기독교도(基督教徒)들의 덕분이다. 경교문화(景敎文化)는 고대회랍의학의 태반을 그대로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더 발전시킨 점도 적지 않았다. 이슬람제국에서 의사는 으레 경교도로 정해져 있었다.

경교도에 의해 계승된 의학이, 사라센문화속에 포용된 결과, 고대회랍 의학서적은 계속 아라비아어로 번역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9세기부터 14세

기까지의 세계는 전적으로 아라비아 의학의 전성기로, 각처의 의학은 그 지배하에 있었다. 아라비아의 의서, 특히 아비센나의 「의학백과전서」(Canon)는 라틴어로도 번역되어, 문예부흥기부터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치과 의학을 위시한 전체 의학의 융성을 크게 도왔다.

중세 말기, 곧 13세기의 의학교육의 중심은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이다. 이곳의 대학은 13세기 후반에 이미 로마법(羅馬法)의 연구로 유명하였으나, 의학교육에서도 유럽의 다른 대학들보다 많이 앞서고 있었다. 이때의 의학교육은, 아라비아의 의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주로 이론교육에 주력하였으며, 임상교육면은 실시하지 않았다. 아비센나의 저서인 「의학백과전서」는 그들 교재의 중심이었다. 유럽에서 최초로 시체해부를 실시한 곳도 볼로냐대학(Bologna Univ.)이다.

볼로냐대학에서 치과의학이 포함된 외과학의 교육이 시작된 때는 12세기말부터 이다. 당시의 위리암(William of Salieeto 1215~1280?)은 볼로냐에서 외과의사로서 유명했다. 그는 해부학 자료를 주로 아라비아 의서에서 채택했고, 그 일부는 자신이 실시한 시체해부의 학식으로 저술하였다. 그와 동일한 시기의 의사로서는 또 사페우스(Thaddeus of Florence 1223~1303)가 있다. 그도 볼로냐대학에서 연구했다. 그는 회랍어의 의서를 직접 번역하여 의학 발달에 기여했다. 그도 유럽에서의 시체해부 실시 초기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하지만 한편 그도 역시 중세에 있어서의 의학을 이른바 스코라스틱(scholastic)한, 즉 번거로운 개념적인 이론치중의 의학으로 이끈 과오도 있다. 의학이 13세기~16세기까지 매우 회의적이며 철저하지 못한 형태로서 발전한 점은, 곧 이 기간에는 과학의 진보가 거의 없었던 증거이다.

13세기말에는 프랑스의 헨리 드 몬드뷰(Henri de Mondeville 1270~1320)가 볼로냐대학에서 의학교육을 받고, 1301년 남(南)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인 몽펠리에(Montpellier)에 의과대학을 창립하여 볼로냐의 의학을 수입하였다. 그가 수입한 해부학은 주로 아비센나의 아라비아계(系)의 내용이다.

또한 몬드뷰의 동창생인 몬디노 디 루지(Mondino di Luzzi 1270~1326)는 볼로냐대학 교수로 1315년 2명의 부인 시체해부를 하고, 비로소 계통적인 해부학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의 그 관계저서는 1316년에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근세적인 해부학 도해서(圖解書)의 시초이다. 본서에는 생리학도 함께 기술되어 있어 특히 내과 의사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다.

몬디노 이후로 약 2세기간은 특출한 학자의 배출이 없었다. 그런데 중세말에 귀 드 쉐리악(Guy de Chauliac 1300~1368)이 외과의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당시의 각처의 의학교육 중심지를 순방하면서 새 학식을 얻은 후에, 개업도 하다가 드디어는 로마법왕청의 주치의사가 되었다. 그의 저서는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세의 치과 의학을 포함하는 전체 의학은, 사라센문화에 있어서의 회랍과 시리아의 의학서적의 아라비아어 번역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이탈리아 및 프랑스 의학의 새로운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되어야 될 점은, 그 발달 과정에서 기독교도들의 공헌이 매우 큰 사실이다. 이 점을 다시 설명하면, 중세의 전기인 이른바 암흑시대에 있어서도 기독교도는 성전의 교육시설만은 남겨두고 있었다. 이것은 대략 4~5세기경의 일이다. 그리고 차레스 대제(大帝)의 시기(771~814)에는 수도원 혹은 성직자원(聖職者院) 등에선 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 교육되었다. 그래서 9~11세기까지는 수도원이나 성전의 책임자는 의학 학식에 있어서 빼어난 사람이 많게 되었다. 성직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명의로는 베르체(Berthier), 디디에(Didier), 휴그(Hugues), 디돈(Didon), 미로(Milo) 등등이 있다. 디디에는 곧 빅톨 법왕 3세이다.

중세의 기독교도들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의학도 교육하였다. 파리의 그들 학교에서는 환자 치료까지 했고, 또 성당안에서도 그러하였다. 이렇게 기독교와 의학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학교는 종합대학들이 되면서도 의학과가 있게 되었다. 13세기에는 이미 유럽에 많은 대학교가 있었다.

유럽에서의 최고(最古)의 종합대학은 이탈리아의 사레루노대학교(Salerno Univ.)이다. 이 대학교가 곧 11~13세기에 걸친 의학교육과 그 연구의 중심이다. 이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는 유명한 저서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근세 해부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양거(Copho the Younger)도 여기 있었다. 이 대학교의 설립 연대는 아직 미상이나 8세기에는 이미 명성이 있었고, 13세기가 가장 융성하던 시기이다.

치과의학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마취법의 발견은, 이탈리아의 니콜라스(Nicholas of Salerno)의 저서인 *Antidotarium*에 처음으로 나온다. 즉, 마취해면(麻醉海綿 Sponge soporific)에 관한 기재이다. 아편과 히요스와 장뇌(樟腦)와 만다라화(曼陀羅華)와 지사(莨菪)와 수련(睡蓮)의 즙을 해면에 축여 이것을 온수(溫水) 또는 증기로 적신 다음 비공(鼻孔) 안에 삽입시켜 마취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마취방법은 그후 13세기 외과의서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이 마취법은 외과에서 12세기에는 이미 응용된 것이리라. 물론 이 마취법의 효과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중세의 의사법(醫師法)은 1140년에 제정되었다. 시시리제국의 로저(Roger 1세)가 의사의 단속규정을 제정했다. 그는 의사들은 관헌의 허가를 받아 진료할 것을 포고하고, 그 위반자의 형벌도 규정되었다. 13세기에는 모든 의사는 반드시 사레루노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시험에 합격된 사람만이 진료할 수가 있었다.

II. 아라비아 치과의학

이슬람교의 흥성과 더불어 아라비아인의 위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크게 미쳤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Mahomet 혹은 Muhammad 570?~632)는 이슬람제국 건설의 큰 기초를 닦아, 그의 사후 사라센문화는 7세기말부터 8, 9세기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치과의학도 과학 전반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발달을 보았다. 이미 언급한대로, 치과의학도 경교도(景教徒)들에 의해서 고대히랍과 시리아의 의서들이 거의 다 아라비아어로 번역된 까닭이다.

아라비아의 의학자로 당시의 제1인자는, 페르시

아인 라제스(Rhazes 860~932)을 위시해서, 역시 페르시아인인 하리 압바스(Haly Abas 혹은 Ali Abbas 10세기초), 아비센나(Avicenna 980~1037), 그리고 아불카시스(Abulcasis 1050?~1036)등이 있다.

아라비아 치과의학의 특색은, 임상적 면에서의 현저한 발달이다. 그러나 해부학과 생리학 분야는 고대히랍 치과의학의 모방에 지나지를 못했다.

이러한 이유는, 이슬람제국의 의사들은 주로 경교(기독교) 교도들이었던 점과,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Koran)은 시체해부를 엄금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들의 치과의과학에서는 소작법을 위시한 수술법의 진보를 크게 보았다. 하지만 발치수술을 가급적 억제한 태도는 고대히랍과 로마시대의 그것과 동일하다. 당시는 벌써 이발사와 같이 그 신분이 얇은 사람들이 즐겨 발치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지식계급이던 의사는 도리어 그 수술을 천시하는 풍조까지 보였다.

아라비아의 의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치과의학 분야에 공헌한 의사는 아불카시스이다. 물론 전기한 다른 의사들도 각기 치과의학 영역의 의견이나 주장을 했으나, 아불카시스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제 당시의 유명 의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제스(Rhazes 혹은 Rasis 860~932)

페르시아인, 30세에 바그다드에선 가장 명성이었던 교수이다. 아라비아어로 많은 저술을 했다. 아라비아 의학자로선 최초로 그 명성이 높았다. 그의 생존연대는 신라의 헌안왕(憲安王) 때부터 신라의 경순왕(敬順王)때로서 곧 신라의 멸망 직전까지이다.

치과의학사상 특기할 점은, 2가지가 그의 공적이다. 하나는 아마도 그가 치아우식증의 경우, 최초로 영구충전을 고안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치과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치마분(齒磨粉)의 사용을 주장한 사실이다.

그가 사용한 영구충전물을, 유황과 명반을 혼합한 일종의 시멘트 같은 것이며, 치마분은 오배자(五倍子)와 호초(胡椒)를 분말로 만든 것이다. 그

는 치아에는 산성(酸性) 음식물이 해로움을 설명하였다.

발치는 모든 여러 치료법이 주효하지 못할 적에 시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치수염, 치근막염 등의 동통은 사혈법(瀉血法·환부의 혈액을 침으로 난자(亂刺)하여 뽑아내는 방법), 또는 아편 등을 환부에 도포하는 방법, 다시 여의치 않을 때에는 환부를 소작(燒灼)시키는 방법 등을 택했다. 그러나 그래도 진통이 되지 않으면, 환치(患齒)의 치은에 아비산(亞砒酸)이나 코로퀀트(cologuintida)의 씨앗 등 일종의 부식약(腐蝕藥)을 첩포시켜 환치의 탈락을 유도하였다. 부식약의 작용으로 치은조직이 모두 부식되어 결국 치근이 노출되면 해당 치아의 발치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염증의 진정 목적으로 설사제를 이용하였다.

아리 압바스(Ali Abbas 또는 Haly Abas ? ~ 999)

10세기경의 페르시아의 명의이다. 라제스보다 약 50년뒤의 사람으로, 20권으로 된 그의 저서 「알마레키(Almaleki)」에는, 3가지 치과관계 치료법이 기재되었다.

하나는 치수염의 진정법으로, 치수강에 원통형(円筒形)의 작은 금속관을 우선 삽입시킨 다음에, 그 원통속에 다시 작은 침(針)을 달구어서 삽입시켜 치수를 소작시킴으로 그 진통을 시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에프리스(齒齦腫)도 역시 외과적으로 절제시키는 치료법이다.

당시만 해도 치열부정의 원인이 된 과잉치는 발치점자와 유사한 기구로써 발치하는 것이었다. 에프리스의 절제법은 이미 로마시대 말에, 바울(Paul of Aegina)이 그 절제방법을 택했다.

세라피온(Serapion 10세기 ~ 11세기초)

시리아의 의학서적 번역가의 가문출신이다. 그의 저술중에서 특히 지적할 수 있는 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치근의 수를 정확히 한 점과, 또 하나는 치마분의 처방법을 많이 발표하였는데 그 일부는 전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고 그중의 다른 일부는 치아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상악구치는 그 식립(植立)을 견고히 유지

하기 위해 그 치근 수가 3개이고, 하악구치는 2개만으로도 그 식립이 가능하기에 3개가 아니라 설명도 하였고, 치아는 평생 성장하는 것이며, 그 영양의 과잉 내지는 부족으로 치아질환은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도 지속성인 격심한 치수염의 경우는 아편을 이용하였고, 또 동요가 심한 노인의 치아는 금선 혹은 은선(銀線)으로 해당치아를 인제치아와 결합시켰다. 그리고 각종 염증으로 발생하는 동통에는 설사제를 사용하여 그 진정을 꾀했다. 이러한 설사제의 내복은 고대인도에서 일찍부터 있어 왔다.

아비센나(Avicenna 또는 Ebn Sina 980 ~ 1037)

아라비아의 내과전문 의학자로서 후세에 크게 그 이름을 남기고, 또 유럽의 의학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그의 생애는 한국의 경우 고려 경종(景宗) 때부터 정종(靖宗) 때로서, 그의 이름은 중국인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페르시아 출신이다. 바그다드의 대학에서 철학과 의학을 배웠다.

그는 몇몇 의학관계의 저술을 남겼다. 유명한 책은 「의학백과전서(Canon)」이다. Canon의 뜻은 회람어로 법칙이라는 말이다. 본서는 그후 무려 5 ~ 6세기 동안이나 아시아 및 유럽의 의학서적으로서 경전(經典)같이 인식된 책이다.

본서는 5권으로 되었다. 이 명저(名著)로서 그는 의공(醫公) 혹은 가레누스(Claudius Galenus 또는 Galen 131 ~ 210) 2세라 불리웠다.

그의 치과관련 기술로서는, 크게는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치아는 평생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 설명한 점과, 또 하나는 치아의 보존과 그 질환 예방책으로 치마분을 권장한 점, 다시 하나는 치충(齒虫)의 존재를 인정한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통이 격렬한 박동성일 때에는 체액이 치근에 과잉 축적된 결과라 하여 치수강의 개방으로 그 진통을 꾀한 점이다. 이 치수강의 개방요법은, 로마시대의 의학자 알치게네스(Archigenes 2세기초)가 행한 요법이기도 하다.

그도 발치수술은 가급적 회피하였다. 부득이 발치할 경우는 신체에 해가 미치는 것이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발치수술에는 겜자나 탈락제(eradicating remedies)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흔히 아비

산(亞砒酸), 석황(石黃), 코로퀀트의 씨앗, 개구리의 장(腸) 등이었다.

아불카시스(Abulcasis 또는 Alzaravius 1050? ~1123)

아라비아 의사들 중에선 치과의학 부문과 가장 깊은 관계를 지닌 사람으로, 외과학의 대표적 인제이다. 한국의 경우라면 고려의 문종(文宗) 때부터 인종(仁宗)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활약한 의사이다.

그는 에스파니아의 남부 코르도바시(市) 근처 출신으로 이슬람교도이다. 그도 코르도바시에 의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의 명성을 높인 것은, 저서 「외과학(De Chirurgia)」 3권이다. 본서의 치과관계 기술에서 특기할 점들은 대략 11가지에 이른다.

1. 치수염의 진정법을 위시하여, 치은농양, 에푸리스, 치은루의 치료법에 모두 소작료법(燒灼療法)을 응용하였다. 치수염의 경우는 라세스의 경우와 같이, 와동에 원통을 꽂고 불게 달군 소작기를 그 속으로 삽입시켜 치수조직을 소작하였다. 관은 그 치료중에 주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치통의 발생이 한냉(寒冷)이나 치충(齒虫)이 원인일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법으로써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소작법을 실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때에 단순히 소작만을 하는 경우 외에도, 먼저 버터(butter)를 우와 부위에 넣고 나서 불게 달군 소작기로 이것을 전기한 방법대로 녹혀 열(熱)의 작용이 그 치근까지 미치도록 하기도 하였다.

2. 에푸리스의 수술로는 절제수술을 권장하였다. 그 수술후의 출혈은, 유산동의 분말을 사용하여 지혈시켰다. 재발된 경우는 재수술하고 다시 해당부위를 소작시켰다.

3. 최초로 치석제거에 대해 그 중요성을 역설하며 스스로도 그 제거법을 시행하였다 그의 저서에는 특별히 치석제거에 관한 1장(章)이 따로 있다. 그는 치석이 부착되는 부위와 그 색채를 설명하고, 그 유해성을 다시 설명하면서 치석제거기구로 1~4회에 걸쳐 치아의 착색이 소실되기까지 반복하도록 하였고, 치석제거기구는 여러 형태의 것을 미리 조제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4. 그의 저서는 치과기계의 형태를 도해(圖解)한 최초의 의서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그것이 곧 원본 그대로의 그림인가함은 미상이다. 현존하는 그것에는 14개의 기구가 1조로 된 것과, 또 다른 현존본에는 12개의 기구들이 1조로 된 것이 게재되었다. 즉, 전자는 아라비아어로 된 것이며, 후자는 라틴어로 된 것이다. 이들 2종의 의서는 모두 옥스포드의 보드레이안(Bodleian) 도서관에 소장되었다.

5. 발치수술은 우선 여러가지 진통요법을 시도해 본 후에 최후수단으로 하도록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환치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발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발치법은, 먼저 치아와 치은을 박리하고, 수지(手指)나 검자로 충분히 동요시킨 다음에 서서히 발거하도록 역설했다.

이때에 술자는 먼저 환자의 두부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고정시키고, 검자를 치아의 식립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고,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제거하도록 설명하였다. 그리고 발치가 되지 않으면, 그때엔 에레베이터(elevator)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는 이발사들의 발치법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러한 술법은 치아의 파절은 물론이고 악골의 골절 등 불의의 사고까지 초래함을 경고하였다.

치조골 내부에서 파절된 치근은 동통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제거해야만 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는 1~2일간 솜에 버터를 무쳐 국부에 넣어 둔 다음에 각종 에레베이터를 적절히 이용하라고 하고, 부득이할 경우는 치은조직의 완전박리도 권하였다. 골조직의 제거에는 외과용 메스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발치후의 출혈은 유산동의 분말을 사용하든가 소작법으로 지혈시켰으며, 포도주나 초 또는 소금으로 구강세척을 시켰다.

6. 치열부정의 경우는 치과용 줄이나 톱으로 해당치아의 돌출부분을 삭제하든가, 아주 발치하는 것이었다. 곧, 외과적인 방법이다.

7. 치아의 외상성 동요는 금선이나 은선으로 그 인제치아와 결찰시켰다. 은선을 사용할 때에는 구

강내에서 4~5일후이면 곧 녹색으로 변하므로 금선이 더 좋다고 설명하였다.

8. 치아재이식술도 하였다. 후세의 그것과 다른 점은 재이식술 때에 사용한 결찰사(結紮絲)를 그대로 남겨둔 점이다.

9. 결손치아의 보철도 하였다. 그는 솜소의 뼈로 조제한 인공치아를 인재치아와 결찰시켰다. 그는 심미적 회복과 저작기능을 모두 회복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10. 라누라(Ranula)의 치료법에 있어서, 그 수술의 가능 여부 내지는 감별법으로서 2가지를 지적하였다. 태양광선으로 보아, 갈색 또는 흑색이면서 딱딱하고 그 부위의 감각이 없으면 그것은 암종성이라 수술할 수가 없고, 만일 흰색을 띠우면서 그 안에 액체가 충만된 경우는 잘 적출하면 된다고 하고, 출혈은 유동산의 분말로써 가능하며, 꼭 구강내의 소독 내지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소금이나 초가 좋다고 하였다.

11. 악골골절은 금선이나 은선 혹은 견사(絹絲)로 치아를 서로 결찰시킴으로써 악골을 고정시켰다.

메슈 지 양거(Mesue the Younger 11세기)

이슬람제국에서의 기독교계 의학교 출신이다. 아비센나의 문하생으로 새로운 특기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는 격통의 원인이 된 치아의 질환은 쉽게 다른 치아로 전파되기에 그 진통이 계속 어려우면 지체없이 발치함이 좋다고 하였다. 단지 그 발치는 동통이 심할 적은 해서 안되는 것이라 하였고, 발치수술이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때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치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겸자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치아탈락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그리고 하나는 소작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라 하였다.

그리고 치아우식증 치료에도 3가지 방법을 지적하였다. 그 하나는 설사시키는 진통법이고, 또 하나는 약제로 우와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진정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작은 칼이나 줄로 먼저 연화상아질을 제거한 다음에, 금박충전을 하든가 혹은 오배자(五倍子)나 몰식자(沒食子)와 같은 적절한 약물로 충전하는 것이라 했다.

메슈(Mesue 8세기말~9세기초?)

앞에 기술한 메슈 지 양거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 의사에 관한 기록은, 독일인 미카엘 부름(Micahel Blum)의 저서인 「치과학서(Zahnarzneybuchlein)」중에 나온다. 그가 금박충전을 했다는 것으로, 이 의서가 나온 시기는 1530년이라, 아마도 금박충전은 사라센문화 초기부터 이미 했었던 것 같다.

아벤소알(Avenzoar 1070~1162)

아라비아 의학자로선 최후의 인물이다. 그는 저서 「테이실(Teisir)」이 매우 유명하나, 치과질환의 기술은 극히 회소하다. 단지 치아우식증이나 동요치아의 치료로선 정맥으로부터 혈액을 빼는 방법을 권유한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런 치과수술법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당시에는 치과수술이 의사의 소관이 아니고, 이발사의 업무로 이관된 때인 까닭인가 싶다. 실은 12세기 전반경부터는, 발치가 어느 특수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하나이기도 했기에, 도리어 의사들은 발치를 크게 회피한 것이기도 하다.

Ⅲ. 중세 후기의 이탈리아 및 프랑스 치과의학

십자군(1096~1292)의 결과는 동방각국의 보다 진보된 문화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곧 당시의 문화 중심이던 동방의 문화는 유럽으로 소개되고, 오랜 전쟁의 몰자 공급로는 그대로 지중해 연안의 통상을 발달시켜, 이탈리아의 각 도시들은 크게 번창하였다.

14세기경의 이탈리아반도는 작은 국가들이 분립상태로 있으면서 각기 독특한 모습으로 독립 발전되어 있었다. 미라노시(市)는 황제파(皇帝派)의 전제정치, 베네치아시(市)는 부호공화정치, 프로렌스시(市), 곧 현재의 피렌체시(市)는 민주적 시민정치, 반도의 중앙으로부터 그 남쪽에는 로마법왕령과 나폴리왕국이 있어 각기 분활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다.

비록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그 형세가 별로 좋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각성만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문예부흥의 기세는 벌써 전국으로 파급되

어 있었다. 1300년대 이전부터 이미 부흥의 기운을 보였던 라틴문학은, 14세기가 되어 플로렌스(Florence)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융성되고 있었다. 플로렌스는, 단테(Dante 1265~1321), 페트라카(Francesco Petrarca 1304~1375), 폭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 등 3대시인을 계속 배출시켜, 라틴문학 부흥의 요람지가 되었다. 전기한 시인들은 문예부흥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지식욕의 발흥은 라틴문학의 연구만으로서 만족되지 못하고, 이어 희랍 고전과 여러 당시의 정치와 사회상과도 연관되면서 그 연구에도 착수하게끔 이르렀다. 하여 희랍의 고전들은 라틴어로 번역되는 것이 점차 많아졌고, 15세기에는 이탈리아 문예부흥의 발전은 드디어 완성되었다.

문예부흥의 기운과 더불어, 이탈리아 각지의 대학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탈리아 남부에선 사레루노, 중부에서는 볼로냐, 동부에서는 파도바의 대학이 학문의 중심을 이루었다. 고전의 연구만 아니라, 중세말부터 아라비아 의학을 수입하여 점차 융창되던 의학교육도 또한 이들 각 대학에서는 활발히 희랍 및 아라비아의 각종 의학서적을 라틴어로 더 번역하게 되었다. 그래서 치과의학은 더욱 아라비아 시대보다 전문분과적인 색채를 명확히 보이게 이르렀다.

이제 당시의 치과의학 관계의 인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브루노(Bruno of Lougobucco 13세기)

최초로 아라비아 시대 이후에 외과학의 저서를 집필한 볼로냐 대학교의 교수이다. 그 저서에는 치과의학 관계로는 특기할 내용이 없으나, 그는 치수염과 치은질환의 경우 소작료법을 전적으로 응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치아를 탈락시키는 치료로서 일종의 파스터를 치근부위에 작용시킬 것을 권했다. 발치수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란프란키(Lanfranchi 13세기)

미라노의 학자로서 저서 *Chirurgia magna et parva*로써 유명하다.

본서에는 치통일 경우의 마취약의 이용법이 기재되었고, 발치수술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강

조하면서 특별히 지치의 발치는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 언급하였다.

귀 드 추우리악(Guy de Chauliac 1300?~1368)

프랑스의 남부 출신이다. 그는 각처의 의학교육 중심지를 다니면서 수업하고, 각처에서 개업을 하였다. 그리고 그후 프랑스 남부에서 로마법왕청의 고위자로서 근무하고, 노후에는 라틴어로 통속적인 「외과학서(Chirurgia magna)」를 저술했다.

본서는 16세기에 이르기까지도 대표적인 의학교육용 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각국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뿐만 아니라 1890년에는 본서의 주석서(註釋書)까지 출판되었다. 본서의 원본 초판은 1478년에 130부가 인쇄되었던 것이다.

본서에는 치과의학 부분이 상당한 범위로 자세히 기술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약 2세기 이전이 되는 아불카시스 때의 지식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약 2세기간 치과의학 분야의 진보는 엿볼 수가 없는 상태이다. 아불카시스의 사망은 1123년이고, 추우리악이 활약한 시기는 14세기 중반이다. 한국의 경우는 당시가 고려의 충렬왕(忠烈王) 때부터 공민왕(恭愍王) 때까지의 시기이며, 중국 원(元)나라 말기에 해당되는 때이다. 그의 저서 내용의 치과분야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략 11가지가 된다.

1. 차아해부 및 그 생리로서, 치아는 제3대(對)의 신경이 그 치근에 분포되었다. 따라서 치아에는 지각이 있다. 치아는 골의 성질을 가졌다. 치근의 수는 치아에 따라 1~4근이다.

2. 치아병리와 치료는 아라비아 학자들의 그것과 일치한다. 치아질환은 5~6종류로 구분되며, 그 요법은 일반적 요법과 특수요법으로 구별한다. 전자의 경우는 위생적인 법칙에 맞도록 주의시키면서 설사제를 복용시키며, 구순이나 설(舌)의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빼고, 흡각(吸角)을 사용하든가 마찰로써 진정을 꾀하며, 두통을 진정시키고, 염증성 체액을 소실케 하기위해 유창 등을 내복한다.

3. 위생상 주의시킬 점은, 생선이나 우유 따위의 부패되기 쉬운 식품,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물은 피하며, 매우 딱딱한 것이나 혹은 무화과나 꿀을 사용해서 만든 것들, 부추(韭)와도 같이 치아

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고, 치아는 가볍게 닦도록 한다. 치마분으로는 꿀과 붉은 소금에 초(醋)를 넣은 것을 사용한다.

4. 치아우식증의 치료법은, 2가지로 구분된다. 전신적인 것과, 국소적인 것이다. 전자는 앞서 기술한 위생 및 치료법이고, 후자는 먼저 알코홀이나 포도주를 다린 것이나 호초 등으로 구강내를 세척하고, 유황과 유황과 장뇌 등등을 혼합시킨 것으로 우와를 충전하는 것이다.

그 충전의 전준비로서는, 우와의 변연(margin)을 줄로 제거하고 다시 우와를 확대시킨다. 치충(齒蟲)의 퇴치법으로는 부추나 마늘을 태워서 조제한 것을 쓴다.

5. 치통료법은 치아자체가 원인일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구분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포스테마(apostema)로 인한 것이라 했는데, 이 술어의 뜻은 당시 흔히 쓰던 것으로, 라틴어로는 농양이고, 희랍어로는 이전(移轉)이다. 곧 조직의 성분이 병적인 분리상태에 있다고 해석한 당시의 용어이다. 그의 의견은 철저한 당시의 기학병리론(氣學病理論)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의 아포스테마에 대한 치료법은, 로마시대의 가레누스나 아라비아 학자들이 취한 방법과 거의가 같았다.

6. 치아동요는 갖가지 원인으로 야기된다. 전신적 외상적 또는 습기나 건조라든가 영양부족 등으로 발생된다.

그 치료법은 각기 다르나, 외상성이면 아불카시스의 방법과 같이, 금선이나 은선으로써 인제치아와 결찰시켰다. 그는 치아탈락의 경우는 타인의 치아이식도 하며, 솟소의 뼈로 조각한 인공치아를 결찰시키는 방법도 하였다.

7. 치마분(dental powder)과 구강세척제에 대해서도 그 처방방을 많이 기술하면서, 치석은 적절한 기구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치근막염이나 구내염의 경우, 구강세척제를 자주 이용하였다.

8. 발치수술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9. 치열부정의 교정법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언급이 없다.

10. 치아탈락약은 그 효과를 의심한다고 하였다.

11. 외과적 절단술에 있어서는 흡입마취약을 상

용하였다. 아편, 파리(Solanum nigrum, Physalis somnifera)의 액즙 등등 마취성이 있는 약물은 수술을 고통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약제 사용법은 아라비아 시대의 그것과 같다. 그는 아편의 내복은, 사망시키는 경우가 있기에 절대로 피한다고 하였다. 흔히 당시는 그러한 마취법을 외과분야에서 자주 사용하였기에 경고한 것이다.

바레스쿠스(Valescus of Taranta 1382~1417)

이탈리아의 남부 출신으로 15세기초 몬페리에 대학교의 교수이다. 프랑수아는 흔히 그를 발스콘(Valescon), 혹은 발스콘 드 탈란트(Balescon de Tarante)라 한다. 그는 내과학과 외과학에 관한 저서에서, 치과질환에 대해서는 아라비아의 의학서적과 귀 드 추우리악의 저서로써 매우 상세히 설명했다. 그 요점은 4가지이다.

1. 치아충전에는 4가지 좋은 점이 있다. 우선 진통 내지는 우식증의 진행 방지, 그리고 그 예방은 물론 다시 치충의 박멸과 구강의 악취를 소멸시킨다. 충전제로는 갖가지 약제의 혼합으로, 거기에는 아편과 히요스(Hyos)의 씨앗과 오배자(五倍子) 등이 혼합된다. 그는 치충 박멸법으로 3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히요스의 씨앗 등을 태운 연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몇몇 진정작용이 있는 약제의 혼합물로 충전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는 우와의 내부에 버들여뀌(蓼)의 즙액을 주입시키는 방법이다.

2. 치석을 마테리아 라피데아(materia lapidea)라 지칭하며, 이것은 그 제거기구나 치마분으로써 제거하여 치은의 출혈 방지와 치아청소를 했다. 전기한 마테리아 라피데아라는 말은, 돌과 비슷한 물질이라는 뜻이다.

3. 발치수술은 회피하였다. 그 이유는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동통이 있어도, 그것이 멈추면 재차 저작할 수가 있으며, 또 그 골식도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까닭이라 하였다.

4. 치아조직이 골조직과 동일한 성질이라는 견해는 가레누스 등의 견해와 동일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 주장했다. 그는 치아는 첫째 그 지각이 예민하고, 둘째 치아조직은 생후에 형성되나, 골조직은 태내에서 이미 형성되며, 세째 골조직은 정맥과 월경혈(月經血)

로써 생성되나, 치아조직은 정액의 힘을 지닌 혈액으로 생성되는 차이점들이 있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의 태생학적 지식 발달을 추경케 하는 좋은 자료로 꼭 주목되는 점이다.

피에트로(Pietro of Argelata 또는 Pietro of La Cerlata(?~1433))

볼로냐 대학교의 외과교수로서 6권인 저서 「외과학」에는 치과의학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의 치과용 기구의 설명 같은 부분은, 귀 드 추우리아(1300?~1368)의 그것과 동일하다. 또 치료법에도 새로운 점은 없고, 아비센나(980~1037) 혹은 아불카시스(1050?~1123)의 그것과 같다. 다만 그의 특색은 치석의 유해성을 크게 지적하면서 치아의 청소를 강조한 점이다. 치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초산을 사용했다.

우식증의 충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우와의 청소엔 초산을 사용하며 때로는 우와의 확대에도 이것을 이용했다.

구강영역 fistula의 치료에 부식제 혹은 비소(砒素)를 응용했고, epulis 치료에는 심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것이 악성인 경우와 양성인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었다.

발토로메오 몬타그나나(Bartolomeo Montagnana (?~1460))

파도바 대학교의 외과교수이다. 그는 가장 좋은 치통의 진정제로 장뇌(樟腦)와 아편의 합제(合劑)를 추천했다.

당시에는 벌써 치아탈락제의 사용은 없게 되고, 발치 위주의 치료법보다 그 보존에 힘쓰는 때이었다. 뿐만 아니라 발치수술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도 아니었다. 도리어 갖가지 요법이 효력을 얻지 못할 경우는 발치를 권유하였다. 때는 15세기의 전반이다.

조반니 플라테아리오(Giovanni Plateario(15세기 후반))

이탈리아 중부 서해안의 피사(Pisa)의 대학교 교수로서, 그는 우식증의 치료법으로 소작법을 추천하였다.

그의 공적은, 환자를 앉혀놓고 발치수술을 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발치를 모두 수평위(水平位)로 환자를 눕혀놓고 실시하였었다.

그는 또 실내의 공기를 신선히 할 점도 지적하면서, 그림으로써 감염률도 적으며 우발증의 발생도 감소됨을 지적했다.

치충(齒虫)의 존재를 그도 아직은 믿고, 아편을 태움으로써 그 연기를 흡입시키면 진정 효과가 있음을 기록하였다.

또 포도주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혼합시킨 것이 치은조직과 구강점막의 괴양치료엔 효과적이라고도 하였다.

조안네스 알쿨리누스(Joannes Arculanus 또는 Giovanni of Arcoli ?~1484)

볼로냐 대학교와 파도바 대학교의 교수이다. 그의 저서는 치과질환에 상세히 언급되었다. 하지만 그 기록에는 많은 과오도 있다. 그는 치근 수에 대해서도 관찰이 부족했다. 치아만은 평생 성장된다고도 하였다. 이 점은 그에게 앞서는 선배들 견해와도 일치되는 과오이었다.

그의 치아보존에 대한 10가지 구강위생 수칙은 흥미롭다.

1. 위내(胃內)의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게 하라. 우유와 짜게 저린 어류는 피하며, 식후의 과도한 운동이나 목욕이나 남녀의 교접은 피하라.
2. 구토를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를 피하라.
3. 무화과나 꿀로 만든 음식, 달며 끈기있는 음식을 피하라.
4. 딱딱한 음식은 피하라.
5. 치아를 들뜨게 하는 음식을 피하라.
6.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피하라.
7. 부추(韭)를 먹지 말라. 그것은 치아를 해친다.
8. 치아를 늘 깨끗이 하라. 식후에는 잇쑤시개로 깨끗이 잇사이를 청소하라. 이때엔 치은을 보호하라. 또 치아를 동요시키지도 말라.
9. 사루비아의 포도주를 다린 것이 구강세척제로는 좋다. 포도주와 계피나 유향 등등을 함께 다린 것도 좋다.
10. 치아는 취침전이나 조반전에 치마제로 닦아라. 치아를 짧은 시간 유류(油類)로 닦는 마찰법은 치은을 건고히 할 뿐만 아니라, 치석의 부착을 방지하며 기분을 상쾌히 하나, 너무 오래 마찰하는 일은 도리어 해롭다.

그는 치마분이 아닌 치마제로서는 꿀과 사탕을 2대1로 혼합시킨 것, 또는 붉은 소금과 꿀이나 들토끼의 두개골의 분말을 혼합시킨 것이 좋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치통의 발생장소는 치아자체에 있는 경우와, 신경이나 치은에 있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치아조직은 본시가 좋지 못한 구성상태로 형성되었기에, 그 결과로서 그 조직내에 병적물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동통을 야기시킬 수 있다. 만일 그 조직내에 병적물질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머리나 위에서 발생된 것이 이동한 결과라 하였다.

치통 진찰법에는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다. 먼저 치은상태를 검사한다. 그리고 갖가지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이상이 없으면, 치아조직 자체와 신경을 검사한다. 여기에 이상이 있다면, 그 동통은 매우 격렬하다.

치아우식증 충전재의 선택을 해당치아 성질에 따라 택해야 됨을 그는 설명하고, 그 감별이 어려울 때에는 금박충전을 함이 좋다고 하였다.

문헌의 자료상, 금충전에 관해 최초로 기술한 사람은 알쿠라누스이다.

하지만 후세의 사학자들은, 그의 기록에는 충전재인 금박과 다른 것과의 비교를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어설픈 점을 들어, 아마도 그는 충전재 사용의 창시자는 아닌듯 싶다는 지적을 한다.

그리고 다시 지적하기를, 알쿠라누스의 저서에서는 치근의 수도 확실히 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그는 실제 임상기술에는 통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하면서, 아마 그 당시는 치과분야에서 금충전이 많이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학서적 중에서 금박충전을 최초로 기술한 사람은 알쿠라누스이다. 곧 15세기이다.

하지만 1530년엔 그 저자명이 확실치 못한 치과 관련 책인 *Zahnarzneybuchlein*이 독일에서 출판되고 있는데, 거기서 언급하길 금충전은 8세기 아라비아의 외과 의사 메슈(Mesue)가 했다는 기재가 있어서, 어쩌면 금충전은 벌써 아라비아 시대 초기에 시술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이 상급 확실치 않다. 참고로 보면, 1530년은 포르투갈이 1500년에 인도경영을 시작

하며, 1543년에는 포르투갈인이 일본의 다네가섬(種子島)에 도착했고, 1552년엔 이미 사비에르가 포교중 중국에서 죽은 때이다.

알쿠라누스는 발치수술에서 3가지 적응증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그 동통이 모든 치료법으로 여의치 못할 때, 둘째 그 병이 부근의 건전치로까지도 만연될 위험성이 있을 때, 세째가 해당치아가 저작과 담화를 장해할 때이다. 그리고 발치수술은 먼저 환자의 혈액을 조금 빼내고, 이어 설사를 시키며 마취제를 내복시킨 다음에, 해당치아는 치은조직과 박리해 놓고 착수하였다. 그가 당시까지의 발치법과 달리한 점은, 단지 발치기구만으로 발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구도 사용하나 또한 동시에 치은의 조각법이나 치은 부식약 등을 함께 응용한 점이다. 발치후의 출혈은 그 가장 좋은 치료법이 조각법이라 하였다.

이상으로써 그의 저술 내용을 살피면, 그는 치아우식증의 병리 내지 치통의 주된 원인은 벌레에 의한 것이라 인식한 점과, 발치수술은 아라비아 시대의 방법을 그대로 계승한 점, 또 금충전에 관해선 문헌상 처음으로 기록한 점들이다.

그는 발치기구의 3가지 종류를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것을 그는 푸리카눔(*pulicanum*)이라 하였다. 후세에 그 창제자(創製者)를 네덜란드의 피터 퍼레스트(*Peter Foreest*)라 지목하든가, 혹은 독일의 월터 리프(*Water Ryff*)라 하는 주장도 나왔으나, 그것은 착오일 것이다. 이미 이들보다 일찍 이탈리아의 알쿠라누스(?~1484)의 저서에 벌써 그 기구들의 그림이 있습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아래싼드로 베네딕티(*Alessandro Benedetti* 1460~1525)

북부 이탈리아 출신이다. 파도바 대학교의 교수로 유명하나, 치과분야와는 밀접하지를 못하다. 그의 저술에서 치과관계의 내용을 조사하면, 6가지 있다.

먼저 수은의 유해성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 그것을 내용(內用)하든 외용하든 간에 치은조직과 치아에 모두 유해함을 설명하고, 치통은 인류 고유의 것이라 하면서 동물에선 찾을 수 없다고 하며, 이어 그 예방법은 거북이의 혈액으로 1년에 1회만

치아를 마찰시키라 했다. 그리고 치통의 원인으로 치충의 작용을 들었다. 치통의 진정제로서 아편의 사용은 위험한 점을 환자의 사망예를 들어 소개하고도 있다. 또 발치도 해당치아의 구별을 잘할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세 후기에는 에스파니아와 영국에서도 치과의 학은 역시 발달되었다. 후세로 전해진 그곳 의사의 이름은 각기 1명씩이다.

조반니(Giovanni of Vigo 1460~1520)

로마법왕청의 외과의사로서,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의 국경 부근의 출신이다. 그는 이집트 연고(Egypt paster)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치은농양은 화농이 잘 되도록 유도할 점과, 그 화농이 여의치 못하면 절개하고 이 연고를 사용하도록 기술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우식증의 치료법으로 우선 연화상아질을 제거하고 금박충전할 점을 권했다. 이어 발치수술은 이것을 이발사 또는 노변(路邊)에서 영업하는 사람에게 일임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라 기술하였다.

존 가데스덴(John Gaddesden 1280~1361)

14세기 전반에 영국 옥스포드에서 개업했다. 그는 주로 아라비아 시대의 의서들을 자료로 삼아, 매우 진기한 여러 치과관계 치료법을 모은 책을 간행하였다. *Rosa anglica: practica medicinae a capite ad pedes*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다만 진기한 여러 처방이 있을 뿐이다.

IV. 치과전문가의 탄생

치과의학이 점차 일반의과학으로부터 분립(分立)되는 기운이 태동되기 시작한 때는, 문헌자료들을 정리할 때에 이미 12세기 이전이 된다.

아라비아의 외과의사 아불카시스(Abulcasis 1050?~1123)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외과학(De Chirurgia)」에서, 발치를 무지한 이발사들에게 일임하는 일을 반대하며 크게 비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프랑스의 귀 드 추우리악(Guy de Chauliac 1300?~1368)은 그의 저서 「외과학서(Chirurgia magna)」에서, 치과전문가를 당따돌(Dentatore)

이라 하면서, 그는 발치 등 치과외과에 속하는 분야는 특수하기에 하나의 전문분과를 따로 가져야 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은, 치과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선 의사 감독하에 숙련된 전문가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때는 곧 14세기의 일이다. 참고로 보면, 1368년은 중국에서는 명(明)의 건국이 있던 해이고, 한국의 경우는 고려의 공민왕 17년이 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14세기의 치과전문가는 그보다 이전인 이발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벌써 그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지닌 기술자이었던 것이라 추정된다.

15세기말부터 16세기초에 에스파니아에서 활약한 조반니(Giovanni of Vigo 1460~1520)는 그 저서에서 발치와 같은 것은, 외과의사나 일반의사들이 그 기술에 숙달되지 못한 까닭에 자연히 그것은 회피하며 전문가인 이발사나 목욕탕의 주인 혹은 길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다.

V. 치과임상 중심의 요점 정리

서양의 중세 치과의학을 치과임상만을 중심으로 그 요점만 간략히 하면 다음 11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치아우식증은 물론 그 전부이며, 그 외의 치통의 경우도 그 원인의 대부분은 아직도 치충이라 인식하였다. 14세기부터 15세기초까지의 일이다.

2. 발치수술 방법은 치아와 치은과의 분리는 물론 에레베이터(elevator)와 발치겸자의 사용법까지도 인식하였다. 하지만 발치는 일단 기피하였다.

3. 발치수술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12세기에 이미 마취성 약물의 즙을 해면에 적서 비공(鼻孔)으로 흡입마취시킨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아편의 내복이 매우 위험한 사실도 인식하였다.

4. 치석의 유해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을 최초로 인식한 때는 11세기 후반 내지 12세기초이다. 곧 아불카시스(Abulcasis 1050?~1123)로서 치석제거기구까지도 소개하였다.

5. 치마분을 치아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아라비아의 라제스(Rhazes 9세기~10세기초)

이다.

6. 치아우식증의 경우, 약제를 이용한 와동의 영구충전, 또는 금박충전까지도 할 줄 알았다. 금박충전은 아마도 아라비아 시대 초기에는 이미 시술할 줄 알았던 것 같다. 문헌상 금박충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알쿠누스로서 15세기이다.

7. 전치부위 결손치아의 보철을 위해, 아불카시스와 귀 드 추우리악 등은 숯소의 뼈로 인공치아를 조제하여, 그 미관과 저작의 회복을 목적으로 인제치아와 금선이다 은선 혹은 전사로 결찰하였다. 11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8. 치열교정을 외과적 방법으로 하였다. 아불카시스는 전치부위의 과잉치아와 전위치아는 발치하

며, 치열 밖으로 돌출된 치아의 치관부위는 치과용 줄이나 톱으로 절제하였다. 때는 역시 11세기의 후반부터 12세기 초반이다.

9. 악골의 골절은 치아를 서로 금선이나 은선 또는 전사로 결찰시킴으로써 골의 유착을 유도시켰다. 역시 아불카시스가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초에 시술하였다.

10. 치과용 기구의 당시의 형태가 도해(圖解)로써 전해진다. 이것도 아불카시스의 저서중에 있다. 치과용 에레베이터와 줄과 톱 그리고 치석제거기구와 발치검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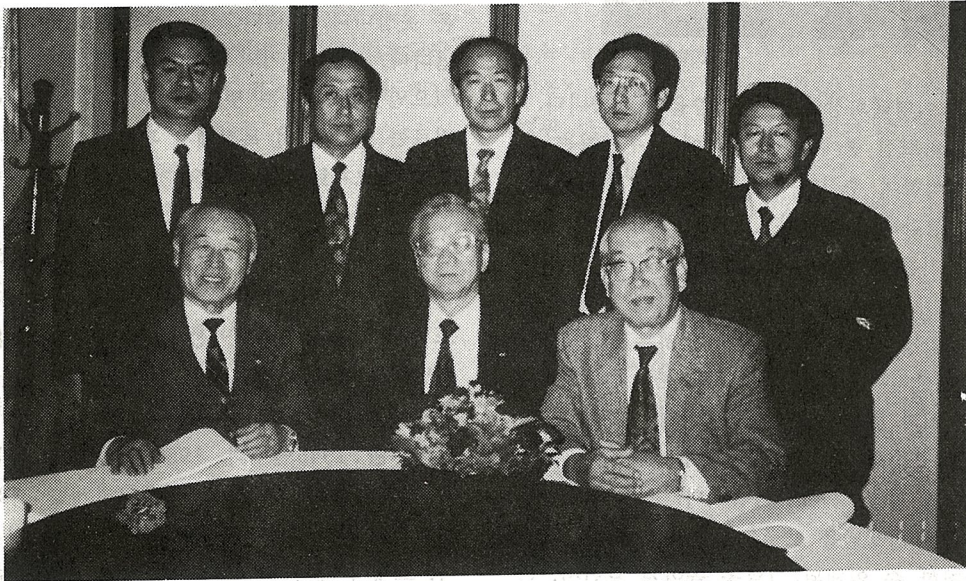
11. 수은(水銀)의 구강내 중독증세를 인지하였다. 베네딕티(Alessandro Benedetti 1460~1525) 저서에 최초로 기재되었다.

◇ 座談會 ◇

<特別企劃>

6·25전까지의 齒科界

1945년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치과계의 이모 저모를 원로들로부터 들어본다.



좌담회를 마치고 참석자 기념촬영

참석자

金周煥(사단법인 구강보건협회 회장)
李春根(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장)
池憲澤(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회장)

학회측

金正均(직전회장)
李丙台(회장)
朴勝五(부회장)
申在義(")
金聖男(총무)

기록: 김성남

녹음·사진: 박수원(월간치과연구)

기록·녹음의 정리: 李丙台

날자 및 시간: 1991. 11. 12 오후 6시 30분

장소: 만강홍(서울 강남구 논현동)

박승오: 大韓齒科醫史學會에서는 學會誌에, 그리고 회원은 저술로서 先史시대 고조선 三國시대 고려 조선조시대 등등 이렇게 구분해서 일관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최근의 194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시기에 대하여는 자료나 문헌에 의한 구분이나 기록이 아닌, 이런 모임을 가져서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실 수 있고 그 당시를 회고할 수 있는 세분을 보시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이 그 기획으로 첫번째 입니다. 앉으신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소개 생략(참가자 명단 참조)



이병태 회장

— 본학회 이병태회장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병태: 바쁘신 중에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좌담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실것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弱점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제때에 하지는 못할망정 늦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18개 분과학회중에서 저희 대한치과 醫史學會 활동이 가장 약한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오늘같은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세분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날, 齒科界가 오늘로 발전할 수 있게된 그날을 돌이켜 보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좌담회의 내용은 본학회지(1991년 12월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던지 30년은 지나야 기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歷史로 기록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들어서 아는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세 선생님께서는 당신들께서는 그저 그런 것이 있었지... 그것 뭐 대소롭지 못한데... 그냥 그런거야... 시시한 애긴데... 또는 생존하시는 분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시면서 머리에만 있고 입밖에 내시지 않고 넘어가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생각 나시는대로 편하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근: 醫史學會의 연락을 받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歷史를 알고

미래를 구상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진들에게 불과 몇 십년 전 밖에 되지 않는 일을 알려주는 것도 또한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런 모임을 자주 열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역사의 기록에 참고가 될것인데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서로 말하는 가운데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편견도 있을 텐데...

김정균: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협회 학회, 그리고 전남 광주치과의사회 40년사 등에서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오류가 없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꼭 편견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는, 과거의 기록에 첨가하고 또 틀린것이 있으면 수정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부분별로 이 좌담에 맞도록 참고자료로 복사해온 것 입니다.

사실은, 협회에서 만든 協會史도 보면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했기때문인데 앞으로 이런 좌담회를 시리즈로 해서, 지금 이춘근 선생님의 걱정말씀대로, 이 좌담회를 통해서 발표되어 있는자료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겠다는 뜻 입니다.

김주환: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치과대학교육 치과의사회 치과개업가 재료관계도 사회 정치 경제의 변화에 따라 개괄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으로 고쳐진다고 보다 그 시대의 총괄적인 치과 얘기를 하다보면 자연히 되지 않겠어요?

박승오: 말씀드린대로, 1941년 이전의 것은 문헌의 고증에 의한 기록들이지만, 1945년이후의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생한 기록이 되어 후세에 남기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치과의사학의 교과서에 들어 가거나 어떤 지침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헌택: 李漢水 초대회장을 모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오늘은 이렇게 기획하였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奇昌德선생님도 책을 내시고 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이병태: 선생님들께서는 1945년 8월 15일에는 각각 어디에 계셨었습니까?

박승오: 어떤 직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지요.

이춘근: 그때는 아마도 학교가 제일 중요했다고 봅니다. 해방되고 며칠 지나니까 文筆玉 선생이 동창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학교출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해방되면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齒科醫師會 보다 學校가 더 中心이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때는 치과의사들이 齒科醫師會보다도 치과대학 접수에 대해 관심이 더 컸습니다. 美軍이 9월초에 상륙해서, 비교적 빨리 접수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日本사람 즉 柳藥達見교수 같은 日人 교수들을 비교적 우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생각나는 것은 <오기하라>라는 일본교수가 있었는데 텍사스 대학을 나왔는데 英語를 하나도 못해요….

지현택: 선생님, 죄송한 말씀같지만… 해방될때 한국에 없계셨던 것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계신 것으로….

이춘근: 아니예요, 한국에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는데 치과대학 교수중에 제일 먼저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지현택: 아닙니다. 선생님. 일본사람들이 <야모 또 다마시, 야마또 다마시> 하니까 저희 강의시간에 <미국에는 미국 혼이 있다. 아메리카노 다마시>라고 했다고 해서 헌병대에 끌려갔다가, 일본구주치과대학으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근: 해방되고 서울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치대교수들이 모였는데… 오기하라 교수가 <미국사람들이 오면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별에 별 사고와 여자문제가 생길는지 모른다>면서 20여명의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직접들었기 때문에, 해방되고도 있었다고 봐요. 그분이 집안의 처자들은 <절대로 빨간 다리 하얀 다리 내놓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던 말이 생각 나거든요.

신재의: 선생님. 금년에 나온 동창회 회사에는 <텍사스 대학출신의 오기하라교수가 통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춘근: 글쎄, 일본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쟁에 저서 그런… 하여튼 그 교수가 진해에 있는 해군을 통했다던가… 진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일본으로

갔어요.

지현택: 텍사스 대학을 나오시고 경성치전 교수로 오셨는데….

이춘근: 내가 보기에 그 당시에 정보라 선생님보다 위였고 50대 후반이나 60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돼요.

신재의: 이춘근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본교수들로 부터 치과대학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춘근: 중요한 역할이라기 보다는… 한국사람으로는 日政때부터 해방 당시까지 있었으니까….

역시 사립학교니까, 有藥達見 교장이 운영해 온 것을 다 밝혀서 사무인계를 했죠. 一年병원수입 세목까지 다 밝혀서 넘겨 주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병원 1년 수입이 11만원. 그리고 조선총독부 보조금으로 1년에 7만원을 받았는데, 같은 사립인 약학대학은 3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배이상을 받았죠. 그리고 1년에 17~18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학교측 지출은 13만원 정도여서 3~4만원이 남았어요. 수입세목에는 한 과목 재시험료 10원씩 받은 것 까지 상세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가시험은 전과목을 보게 하는데 10원이었습니다. 학생이 옷장을 빌려 쓰는데 4원씩 받았는데 그것도 빠짐없이 기록했더군요. 나중에는 올라서 5원이 되었죠. 신발장에 신 넣는 것은 무료. 그때 하숙비는 10원정도 었습니다.

김주환: 지현택 박사는 해방될때 서울에 있었지요?

지현택: 예.

김주환: 내선 일체라고 해서 일본사람이나 한국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준다 하면서 징병을 했는데, 저는 징병1기가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소집장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고향에 내려가 군대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방이 돼서 서울에 올라왔죠. 그래서 해방당시의 상황은 아무래도 池박사가 많이 알 것 같은데….

이춘근: 잠깐, 歷史에 이야기는 꼭 말하고 싶은게 있어요. 池박사 金회장이 여기에 있는데, 이 분들이 입학시험을 치러 왔는데 지원자가 2,800~3,000명이나 되어, 小公洞의 교사에서는 치를수가 없어서 남대문소학교(국민학교)와 용산중학교를 빌려서 3



김주환 박사

곳에서 입학시험을 보았습니다. 세계 역사상으로 유례가 없을 줄로 압니다.

김주환: 왜 그런가 하면, 한국사람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끌려간다는 말도 했습니다. 2차대전엔 소모품으로 나가게 되니까 군대에 안가려고 다들 몰렸던 말예요.

일본사람들은 구주나 이런데서 오기도했지만, 또 관부연락선이 폭격을 맞아서 가질 못했어요. 결국 한국내에서 의학계통, 공대 특히 광산과 그리고 치전에 몰렸지요. 공부도 공부지만 우선 죽지않고 살려고 몰렸지요. 약전은 당시 1년이 줄었어요. 그리고 당시 다른 B전문 Y전문학교는 지원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生과 死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춘근: 한국사람 40명모집에 60:1인가 70:1이었어요. 그때 120명 모집이었어요.

김주환: 33명이었습니다. 경쟁율이 세계 치과 대학 입시사상 최고였을 겁니다.

이병태: 하여간에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일동 웃음—

김정균: 바로 전해도 그랬습니까?

김주환: 전혀 달라요. 그전해는 군대에 안 갔거든요. —일동 웃음—

이춘근: 공교롭게도, 치과는 입학하면 연기하게 됐어요. 그러다가는 또 폐지 됐지요.

김주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까지는 징집연기가 됐는데, 3학년때가 되니까, 전쟁이 커지고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젠 끌어가게 되었어요. 그

래서 졸업은 4년이어야 하는데 수업년한을 6개월을 단축시켜 졸업시켜 군대로 끌어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4년을 3년 6개월로 줄었다는 것이죠.

지현택: 일본인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보니, 일본의 齒專은 졸업말을 때 까지 한사람도 불러가지 않았답니다. 경성치전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식민지의 비애였던 말예요. 대학 교수였는데 그 사람들도 놀랐어요.

박승오: 그러니까, 45년도 8월에 池 회장님께서서 어디에서 무얼하셨습니까.

지현택: 학생이었죠.

이춘근: 식민지의 한반도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머리를 짧게 깎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학생들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칙에 있는 사람도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자르게 했지요. 저는 건디고 건디다 못해, 결국 제일 늦게 머리를 깎았는데, 깎고 얼마 안있다가 해방됐지요, 나... 참. —일동 웃음—

단발령이라고 해서 깎게 했어요. 전쟁에 협조하지 않으면 비국민이라고 했었죠. 참고 참다가 해방되던해 4월쯤 깎았는데... 금방 해방됐어요. 그리고 일본서는 옷도 자유롭게 입게했는데 우리에게엔 국민복이라고해서 카키색의 옷을 입혔어요.

박승오: 해방이되구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동안 3년간의 군정간에 일본교수 일본사람은 갔을테구요...

김주환: 일본교수들에 관해서 말하면, 남쪽에 있는 교수는 그렇질 당하지 않았는데... 신사적이었죠. 북쪽에 있는 일본교수들은 많은, 갖은 모욕을 서울역 앞에서 池 박사도 같이 보았지만, 해방이 되자 서울역 앞에서는 일본여자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얼굴에 검게 칠하여 남자처럼 보이게 하면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有藥達見교장과 치과대학교수를 하시던 분들을 용산역에서 환송하는데, 일본교수들중에서 몇몇분은 놀래고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당했던 사람 얘기를 들었으니까 말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욕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습다. 그때 나기라고장은 눈물을 흘리고 갔지요.

교수들이 겁을 먹게된 일이 또 있는데, 보철학교수인 히로다 경성치전 병원장이 신당동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그만 살해됐기때문에 신변에 대해 더 겁을 먹었지요. 전학생 전직원이 나가서 환송했습니다. 11월 중순경, 날씨는 쌀쌀 했어요.

이병태: 강도에게 살해당했다고 하셨는데요. 민족적인 감정이라던지..., 그러니까 단순 강도에게 살해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까?

김주환: 그럼, 그럼요.

이춘근: 확실해요. 그때는 강도가 日本사람집에만 들어간게 아니예요. 한국사람 집에도 여기 저기 막들어 갔거든요. 장례식때 내가 갔었는데 사람들 말이 부인때문에 죽었다구 그러데요. 강도가 들어오면, <단쓰에 두었다가 그냥주어라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교수들끼리 이렇게 얘기 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때 히로다교수 집에도 그걸 그렇게 작만해 놔대요. 순간, 부인이 겁이나 현관으로 뛰어나가면서 <강도야> 그랬대요. 그때 강도와 히로다 교수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강도가 뛰어나오면서 일본말로 부인에게 <들어가 보라구> 하더라요. 그래, 들어가보니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친지들이 그러대요. 장례때 들은 얘기지만 부인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들을 하더군요.

지헌택: 히로다 교수는 성격이 아주 괘괄하셨죠. 그리고 엄격했어요.

김주환: 사실, 한국인에게는 차별대우가 좀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뭘 좀 시켰다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따귀를 때렸어요.

이춘근: 그때 일본교수들 봉급은 좋았어요. 400~500원을 받았습시다. 대단한 돈이었습니다. 보너스는 별도죠. 몇몇교수는 단신으로 와서 집도 짓고 집도사고 그랬어요. 히로다교수는 일본부자였대요. 그래서 일본서 재산을 가져다가 동두천부근에 땅도 많이 사 놓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주환: 이춘근 선생님께서 더 많이 아셔서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는 것 그리고 희미하지만 더듬어보면... 그때 일본사람이 가면서 성북서에서 학생들과의 충돌사건이 있었는데...

지헌택: 서울 성북경찰서 지역이 치대와 연희전

문학교의 공동관할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 치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학도대를 조직하여 치안을 학생들이 장악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학도대 대장은 이철승씨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에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균: ...?

김주환: 선우양국 선생이었어요.

— 일동 기쁨의 웃음 —

지헌택: 이런 정도로 치과대학생의 활동이 막강했고 선우양국씨의 활약상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있다가, 치대는 성북구 지역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성북구지역의 치안을 돌보자면 성북경찰서를 접수해야겠는데 일본경찰이 칼차고 총메고 있어서 문제였어요. 전차 통행, 길거리 교통정리, 야간 방법...이런 것은 우리들이 다했지요. 학도대 완장을 두르고 한동안 했습니다. 해방도 됐고 젊은 학생들의 행동에 일반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학도대 완장을 돌리고 길가에 서 있으면 자동차도 서서 어디가느냐 했고, 어떤 경우에는 전차도 달리다가 서주기도 했습니다. 하여간에 순수하고 뭔가 하겠다는 열의들이 대단했죠. 정의감과 민족정기에 불타는 행동이었죠. 그때 치대학생들은 간다했고 연대측에서는 간다 안 간다했는데 결국은 성북경찰서로 가서, 그것도 경찰서장실로 가서는 무장해제를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서장이 <이건방진 놈들>하면서 칼을 뽑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가만히 있다가 개죽음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간, <좋소. 내일 다시 오겠오> 하고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학생들이 총동했습니다. 성북경찰서를 포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좁혀들어 갔죠. 경찰서 안에서 보니까 <사각모>를 쓴 학생들이 좁혀오면서 마이크로 <우리가 성북경찰서를 접수한다>고 하거든요. 거의다 접근했는데, 그만 서장이 발포명령을 내렸어요. 총소리가 막나고...

김주환: 우리 치대학생들은 군사훈련을 호되게 받았기 때문에 전부 엎드려 낮은 포복상태로 했는데... 연희전문 학생들은 그냥서 있었던 말예요. 결국, 2명이 죽었어요.

지헌택: 이런 불상사가 있는 다음, 드디어 우리가 그 이튿날 쯤 접수를 했습니다.



이준근 박사

김주환: 그리고 며칠 후에 충맞아 죽은 친구 장례식을 거행하게 됐어요. 한 친구는 저의 중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하여튼, 영정을 들고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이병태: 그 시기는?

지헌택: 8.15 이후 10월 이전 일입니다. 有藥교장 가시기 전일입니다.

김정균: 그러면 그때 치과대학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그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근: 형식적이지만, 인제자인 일본사람은 有藥교장, 인수자로서는 돌아가신 朴明鎭 李有廣 또 지금 미국에 계신 鄭保羅 그리고 나 이렇게 네사람이 도장도 찍고해서, 행정적으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해서 10월쯤 되니까, 문기옥 선생이 학교에 찾아와서 동창회에서 접수하자 그랬다구요. 그런데 학생이나 치과의사가 모이지도 않고해서 또 우리학교가 사립학교이니까 이사회를 조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명진 이유경 정보라 문기옥 김용진 이렇게 여러분을 이사로 정하고 이사회를 조직했습니다.

박승오: 선생님은 왜 빠지셨습니까.

이준근: 당시 나는 27세이고... 젊었으니까요. 학교 이름도 잠깐은 漢城齒科大學이라고 했다가 다시 京城齒科大學이라고 했어요. 경성치과대학이란 명칭이 제일 오래갔지요. 1946년이 되면서 국립서울대학교안(줄여서 <國大案>)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야, 이것정말 잘됐구나. 사립대학이라서, 어디서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잘 됐

구나> 했어요. 1945년 11월 1일에 개강했습니다. 다른 전문대에서는 엄두도 못냈던 때였습니다. 첫날 강의를 하고 나왔죠. 46년 봄이 되었는데 동창회에서 <국대안>에 반대했어요. 사립학교로 남아야지 국립으로 되면 안된다면서 말예요. 또 학생들, 주로 좌익계통의 학생들이 살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날 강의 시작했다고 했죠? 그 4학년을, 1년을 다닌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다녔어요. 지금 김주환 회장 지헌택회장, 이 두분이 그때 4학년이었는데 저더러 담임을 맡으라고 하는데 사실 나이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단 말예요. 좌익 학생도 몇명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날 잘 맡아주었고 저역시 학생들에게 친근감과 호감이 갔고해서 맡았지요. <국대안 반대>에 대하여 동맹휴학을 주동하는 학생들을 개인 개인 만났지요. 그리고는 <왜 국립대학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사립대학교로서는 도저히 운영도 안되고 발전하기란 힘든다하면 개인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찬성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한다> 했더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 놓고는... 학생들이 나가면 달라져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동맹휴학을 한단말예요. 그때 안타까웠던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수입이 있고 운영에 보탬이 될텐데 학생들이 이를 사흘 놀아버리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는 동안에 국대안 반대가 점점 심해져 갔어요. 1주일씩도 동맹휴학을 하고 했어요. 전 몇몇했지만 지금도 국대안을 찬성했던 것에 변함이 없어요. 병원과 학교 운영도 운영이지만 발전을 위해서 국대안을 앞장서서 공공연하게 주장한것은 저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교수들은 학생들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치였어요. 사실, 저는 6.25가 나서 부역자로 몰리기까지 했어요. 학생들을 옹호했다 이거 애요.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국대안 반대 주동학생은 퇴학처분해라> 했거든요. 공대 법대 농대는 퇴학을 주느냐 마느냐 하면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학교에서는 앞장서서 퇴학을 시켰거든요. 저는 안된다고 반대했죠. 내가 담임이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몰라서 그러는거지 다른게 아니라고 했죠.

김주환: 그때 池박사와 제가 4학년학생이었어요. 말씀대로 시국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형편이어서 4년을 1년반을 다녔어요. <국대안> 때, 학생들이

강의실로 모이면 양분되어 있었어요. 좌익학생들이 과격했는데... 처음에는 좌익인지 뭔지 몰라요. 각자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오늘 저녁에 회에 가자>해서 가보면 독서회, 아니면 좌익계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주동이 돼서 토론하고 해서, 처음에는 순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홍사일 같은 사람이 와서 열변을 토하구...

지헌택: 홍사일 선생 뿐만이 아니죠. 몇몇분이 있죠. 지금 선배이기때문에 말을 다 못하겠는데...

신재의: 아니, 이제는 말씀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예를들면 준비위원이 10명인데 8명은 열거되고 2명은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는 밝혀주시면...

박승오: 우선 <국대안>전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어떻게 해서 사립이되었나 하는 것과 해방되고 우리 치과대학에 교수진 중에서 좌익성이 있던 교수는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드립니다.

지헌택·김주환: 글쎄, 안계셨다구 하기는 좀 어렵고... 또 한두분 계셨겠죠.

지헌택: <국대안>이 1946년 초부터 나와서 우리 4학년 반에서도 찬반이 분명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표면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표급 사람을 투쟁위원회·위원장을 시킨다구요.

뒤에서 조종하려는 계획이었죠. 몇사람이 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하다가 학생회에서 선우약국 선생이 당선시켰어요. 그러니까 선우양국선생이 나가더니 딱뿌러지게 얘기 하더라구요. <나는 38 따라지다. 나는 이북에서 공산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몸소도 체험했고 고향사람이 행하고 당한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말았을때,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건 목숨과 바뀔야할 경우도 생길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자신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끝내 버티더라구요. 결국 위원장을 뽑지못하고 다음날로 미룬적이 있어요. 단지 선생님(이춘근)께서는 짧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학생회를 하면 몇몇 선배 선생님들 오십니다. 그때 학교를 접수하려다 못하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뒤에서 조정한다구요. 중간이나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분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리거나 알고 보니 왼쪽의 선배들이었다구

요.

김정균: 학교에 못들어오신 분(교직원이 못 되신 분)들이어쨌군요.

이춘근: 학교 외부사람들이었지.

신재의: 그 당시 학교에 계시던 분을 <4인방>이라던지... 이렇게 불렀다고도 하던데요. 이렇다면 <4인방>에 반대 되시는 분들은 누구누구이셨습니까.

이춘근: 글쎄, 학생들 <국대안>반대에 학교교수중에서 학생에 동조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글쎄, 학교 밖에서 그랬겠지.

지헌택: 앞에서 얘기했지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치더라도 표면엔 나서시지 않으셨지요.

신재의: 학교밖에서 반대하시던 분들은 누구누구이셨습니까.

이춘근: 사상적이라구 보다는, 학교가 혼란하니까 다소 내가 학교를 차지해보겠다는 사람들이었을 꺼야.

이때 지헌택 김주환 두분의 음성과 박승오 신재의 질문자의 음성, 김정균의 음성까지 뒤섞여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문기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조용해지면서 좌담이 시작되었다... 편집자.

지헌택: 그때 학생회를 하는데, 학교문제가 뜻대로 잘 안되니까 어떤 선배 선생님께서 <개새끼들 말야 다 때려 내쫓아야 된다>하면서 가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박명진? 이 ○○○ 때려 내 쫓아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선배가 나가는데 학생중에 누가 박수를 쳤어요. 그때... 거기 있었어?

김주환: 응, 계단 교실이었지.

지헌택: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승인데, 박수를 쳤느냐 이겨죠.

김주환: 그게 결정적이었죠. 하여튼 <국대안>에 적극 협조하고 앞장섰던 분은 박명진 학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부총장에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그분의 발언이면 신임을 받았어요. 치과의사로서 두각도 나타냈고 치과대학을 세우는데 큰 일을 하신 분이요.

이춘근: 회생적이었고, 학장하시면서 돌아가실



지현택 박사

때까지 전념 몰두하셨지요. 돌아가실 때는 전재산을 다 내놓으셨지요.

지현택: 그렇습니다.

이춘근: 해방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결국 학장하시면서 자기 재산 다 없애셨지요.

김주환: 박명진학장을 보고 서울의 선비라고 했어요. 본래 고향도 서울이고, 학위를 경성제대 약리학 교실에서 스기하라 교수의 지도로 받으셨어요. 그 당시, 경성제대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사람 몇분 되질 않습니다. 조호연씨, 배진극씨가 받으셨어요. 조호연씨는 제가 오래 모시고 있었는데, 경성제대 부속병원 치과과장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반태유씨가 하셨죠.

이춘근: 그렇게 4사람이 경성제대에서 학위를 받았죠.

지현택: 일본사람 하라다. 그분이 생화학교실에서 받았죠.... 박명진 학장 프로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945년부터 해방되자마자 치과대학에 배구부가 생겼거든요. 소공동 거기에 정원이 있었는데, 경사진 곳이지만 여기다가 코트를 만들자고 해서 학장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한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자신 있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우양국(씨)하고 둘이 들어가서 서로 눈치보다가 노력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아무소리를 안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이튿날부터 삼달고 한삼 두삼 파내고 돌도 들어 났어요. 그래요 아무 소리 안하셨습니다. 두달쯤 걸려서 배구

코트가 됐어요. 네트는 일본군대위정망을 실로 꼬매고 해서 만들어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공실 옆이었어요. 그래, 올린 공을 점프해서 때리면 기공실 유리창이 썩그렁하고 깨졌습니다. 많이 깨졌죠.

이춘근: 그래서 철장을 했어요.

지현택: 그런데 그 철장을 할때까지 한번도 얘기하시거나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매일 5~6장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면 썩끼워져 있어요. 박명진 학장님께서 한번도 <야, 이놈들아 네놈들이 유리 자꾸 깨트리면 어떡하나!> 하시지 않았어요. 또 너무 말이 없으시니까 차라리 이런 야단을 맞으면 편할것 같더라고요. 배구 그만두라는 말씀, 유리 값 변성하라는 말씀... 졸업하는 날까지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체구는 자그만하고 자상하기도 하지만 간간하고 대단한 분인데... 그 맘속에는 통이 큰 세계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물론 치대배구팀이 대학부에서 연전 연승한 것도 작용은 했겠지만, 그래도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춘근: 그 마당이 손바닥만하잖았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학교 여학생 또 남학생들이 손바닥만한 운동장(?)에 가득 찼어요. 워낙 배구들을 잘 하니까... 배구라하면 경성치대 아주 유명했어요. 그때 선우양국 지현택이 두분을 전국적으로 참 유명했어요. 요즘 프로야구 얘기들 하지만 그때 인기 대단했던 분들이라고요.

김주환: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미군정청에서 원조로 많은 재료를 보내 주었는데,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하신 것 입니다. <이 석고가 설탕보다 더 비싸다. plaster가 sugar보다 더 비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저 학생때 그냥 마구잡이로 쓰다싶히 낭비가 심하니까... 야단 치지 않고 그러셨어요.

이병태: 저희들이 실습할때(63년), 그리고 전공 의시절(67~70년)에도 플라스타와 설탕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성남: 실제로 지금도 그런 정도지요.

김주환: 더군다나 그 당시는 전쟁후라서 먹는 얘기가 절박하게 들리던 때였습니다. 그 박명진학장은 스승이시기도 했지만 저희들 반에는 부모님 같기도 했던 분입니다.

박승오: 그럼, 병원장비는 그대로 일제시대에 쓰던 것이었죠? 미군정이라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았다던지 하는 일이 있었나요?

이춘근: 일정시대것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기구 얘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 꼭 해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엔 학생들이 기구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없는데... 해방되자 한국은 도저히 외국에서 기계를 사올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기도 했지만 전부 일본서 들어오던 것이었으니까 말예요. 요즘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가 가지 않을거예요. 말하자면 기공실에서 기공하는 기계, 병원에서 환자진료하는 기계, 이것이 모두 학생들 것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박스가 있어요. 그 걸 들고 올라가서 열어놓고 발치·근관치료 인레이 이런 것을 다 자기 기구로 했어요. 이 반들(김주환 지헌택 학년)도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기계를 다 샀어요. 이 분들이 졸업할때 자기기계를 가지고 나가면 후배들이 기공실습도 못하고 병원서 치료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두분의 담임을 했기 때문에 하소연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면 후배들이 맨주먹이다... 그러니 후배를 위해서 내 놓고 나가야지, 안되겠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하고 모두가 회의를 하고나더니 <우리 이것 다 두고 물려주고 나가자.> 이렇게 기증한다는 결정을 했어요. 이 반동문들이 기계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갔기 때문에 그후 몇해동안은 사지 않았어요. 그 공은 대단한 겁니다. 6.25가 나니까 기구 부족은 더 심해졌는데, 6.25이후까지 사용한 것도 있어요. 부산서 올라와서 케작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환자진료했다구요. 요즘 처럼 스텐리스라던가 코발트 크롬 합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아주 긴요하게 썼어요. 이 두분들 클래스의 역할은 대단했어요. 6.25후에는, 우리나라 돈도 없지만 달리는 더 없었지요. 한국은행에서는 실수요자에게 입찰해서 달러를 주는데 한국돈이라도 있어야죠.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한번인가 하도록 했죠. 실수요자 중명을 받아다 수속을 밟아 한국은행에서 기계비를 걷어 가지고 기구를 들여 오려니까 학생들이 졸업할때가 됐어요. 그것도 몇가지... 어떤 학년은 기계비를 3번인가 받았는데도 졸업할때 기계를 나눠주지 못하기도

했으니...(일동웃음) 그다음 부터는 학생들로 부터 기계를 사게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모든 치대생은 자기 기구는 자기가 사야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겠다 해서, 핸드 인스트루먼트는 고려기계에 만들도록 해 보았죠 손재주가 어떻게 있는지 핸드피스를 잘 만들어 왔어요.

김정균: 그 당시예요?

이춘근: 음, 그럼요, 놀랐어요... 겠다 뻔다하는데 좀 잘 안되기는 했지만...(일동웃음). 1년에 500개만 팔리면 아주 훌륭한 것을 만들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말고 핸드 인스트루먼트 몇가지를 적어 썼어요. 그리고 기구를 주고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가격에 반의 반 값이 되도록 하자고 약속했어요. 기구 종류가 약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법 잘해왔어요. 학생들에게 사게 했죠. 아, 불평이 나와요. 시중에 파는 가격에 80%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별로 안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 이름을 써 줄테니 학생들이 각자 준비해라. 대신 등원할때는 전부 가지고 와야 한다 했지요.

김주환: 선생님 이전 저희 졸업얘기를 1947년 7월 11일 저희들이 졸업을 했어요. <국대안> 이후, 국립서울대학교 첫졸업이었고, 당시 총장은 서양인 <하르비 안스테트>라는 분이었습니다. 33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복으로 가기도 하고 뿔뿔이 헤어졌는데, 딴 졸업생보다 들어갈때부터 굉장한 경쟁률을 거쳤고 전쟁에 끌려갈까 초조했고, 또 다니면서는 말도 못할 강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총검술등 일본 훈련이었죠. 또 해방이 되어서 졸업이란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두달쯤있다가 지금 서울의 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로 들어갔고... 그때 池박사는 세브란스 치과로 갔죠. 나는 무급조수라고 하여 5년간 무보수로 일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일로 너무 뻔다하는 것은, 서울 의과대학에서는 레이션 박스를 보급해 주기도 했고, 미국인들이 입던 헌옷을 보내왔는데... 전쟁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내 온 것이죠... 그런데 무급조수는 그 배급도 뻔다구요. 월급만 없는데 아니라 무급조교라는게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로구나(일동웃음) 하는 생각도 했지요. 그때 과장은 조호연씨였는데 醫齒一元化라



김정균 직전회장

고 해서, 기초는 물론 모든 공부를 다하고 나중에 전공을 어느쪽으로 하느냐... 치과에 대한 수련을 해야 치과의사가 된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서 주동이 되다싶이 하셨습니다. 조호연 과장이 아침부터 다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결국은 의사들의 반대도 있었고, 치과의사가 치과의사면 됐지 뭐하러 의사에 예속되느냐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거기서는 아주 확실하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 해서 결국은 오늘날처럼 되었죠.

신재의: 그때 모금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김주환: 했죠.

지헌택: 申仁徹씨도 一元化를 적극 주장했었어요.

신재의: 문기옥 신인철 서병서 이동환 김용진... 이런분들...

지헌택: 김용진 선생은 별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협회장이고 해서 거론된 게 아닌가 해요.

1946년도 초에 <국대안> 문제가 나오고 양분되고 했지만, 경성치전 입장에서는 <국대안>이 구세주같은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4학년이 돼서 어떻게든 졸업을 해야했는데 졸업을 안시켜요. 겨우 졸업을 했죠. 그런데 졸업 며칠 앞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춘근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를 하신 겁니다. 후배를 위해서 기계를 학교에 기증할 수 없겠느냐,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의 경제조건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북에서 내려온 학생들 지방학생들 또 어려운 학생들... 개인들도 모두 곤란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자리에서는 기증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수 선생님들도 어려운 조건이다... 우리도 어렵다... 좋다, 학교에 기증하자... 이렇게 됐죠. 그제 7월 11일 졸업식이 끝나고 저녁에 아마도 학장실앞에 회의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사운회를 했죠.

이춘근: 소수도 사다 왔지(일동웃음).

김주환: 막걸리도 가져다 왔어요.

이춘근: 모두가 넘어질 정도로 마셨어요... 하하하. 그뿐인줄아오...

지헌택: 학생하나 하나가 선생님들 한분 한분을 붙잡고 껴안고 영영 울었어요. 시대적이지요 인생의 고비요... 그럴수 밖에 없었어요.

이병태: 선생님들, 그때 33분이 등록금을 내는데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김주환: 그때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중에는 월사금이 없어서 공부 못한 분도 있었어요...

이춘근: 등록금 가지러 집에 다녀오라 1년 늦은 경우도 있어요. 金英海 선생같은 이는 돈가지러 집에 갔다가 1년 늦게 졸업하지 않았어요(일동 폭소 후, 눈시울 적심).

김주환: 그 시절에 1·2년 늦는건 다반사였지요.

지헌택: 역사지만 말이죠... 선우양국선생 같은 이는...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걸 알았거든요. 운동하면서 피를 토했으니까... 배구시합을 하면서도 토했어요.

이춘근: 그때 어떤 교수는 <저, 선우. 1년 낙제 시켜서 붙들어 두어야겠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투혼을 가졌어요. 너무 배구를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숙사에서 앓고 있는데, 약값도 주질 못했어요. 마침 학교에 간유가 있어서 한병 준것 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기왕에 어려웠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취약도 요즘처럼 쓰는것이 아니라 사용한 앰플을 두었다가 토요일이면, 간호원과 고무 마개를 빼고 소독해서 2% 푸로케인을 직접 만들어서 넣고 다시 고무마개를 끼어 넣어서 1주일 동안 병원에서 쓰곤 했죠.

그때 고무마개를 빼는 것도 못 쓰게된 핸드 인스트루먼트 끝을 살짝 꾸부려서 잡아 빼면 <퐁·뽕> 하는 소리를 내며 빠지는데 그런 요령이라던지... 고무마개를 넣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던 시절이었죠. 어려웠던 한때였어요. 그 빈 앰플도 미군이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름방학에 무의촌 진료를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만드느라고 진땀을 흘렸어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이것좀 만들라고 했죠. 문제없다고 하더니 정말 잘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사할때 10이면 8개가 깨져요. 고무도 말려들고, 새고해서, 유리내면과 고무마개 사이에도 실리콘을 발라야 한다고 가르키기까지 했어요. 주사기자체도 못만들었다고 봐야해요.

지현택: 그리고 부민관인지, 지금 조선일보자리 쫓아서 미군병원치과가 한 곳 있었어요. 4학년때였는데 미국의 치과가 어떻다는 것을 처음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 견학을 시켰어요. 치과대학에서만 보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파라다이스 예요.

김정균: 원자력병원 있던 자리였던가요, 아니면 콘센트가 건물였던가요.

김주환: 아네요, 그렇게 속으로 안들어 갔습니다. 길가 어떤 건물이었었는데, 그 건물은 접수해서 쓰고 있었고 서울시내 미군정청 직원과 가족 치료를 해주던 곳으로 생각돼요. 지금 池박사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나더러 체어에 앉으라고 하더라구요. 뭘 개더니 입에 넣는데, 그때 처음으로 엘지네이트 인상을 당해 봤다구요. 엘지네이트를 처음 본 것이죠. 학교에서는 그때까지 석고아니면 모델링 컴파운드 가지고 인상을 뗐거든요. 정말 깜짝놀랐죠.

지현택: 그때가 우리 4학년때였어요.

이춘근: 새로운 지식에 관한 것이라면 시대는 좀 훗날 얘기지만, 내가 치대부속병원장일때(1956년경)였어요. 車文豪선생이 미국 와싱턴대학에서 小兒齒科를 공부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소아치과>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였을 때였죠. 그래서 김수철선생 김만수선생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났던지 保存科에서 결사반대예요. 제가 병원장때였지만 아무런 말도 안했는데 소문이 퍼졌어요.

<뭘! 소아치과, ‘발치치과’ 하지! ‘크라운치과’ 하지...!> 하면서 많이 비웃었습니다. 소아치과는 무슨 소아치과야, 지금(당시) 보존도 이런 상태인데... 이러는 동안 車선생은 날 찾아와서 살금살금 줄든단 말야... 젊은 사람이 미국가서 새로운 것을 하고 왔는데 꼭 어떻게 하도록 해주야지 하는 속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을 물으면 결사반대예요. <소아치과? 이빨치과라고 하지!> 이러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해주어야하지 않느냐 해서 학생휴게실자리에 소아치과 진료실을 차렸어요. 그때 학생들 참 순했어요. 요즘 같으면 학생휴게실 뺏었다고 데모하고 난리쳤을 겁니다.

암실같은 방을 수리해야겠는데, 돈이라곤 사친회비라는데 있다구 해야 선생님들에게 몇천원씩주고 나면... 돈이 없는데... 미국서 준 원조로 유니트체어 70여대준것을 대충 수리해서 하면 되겠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당시 160~170만원이면 될것 같더군요. 본부에 갔죠. 그때 서울대학교 본부에 金仁哲선생 부친께서 사무국장을 하실 때였어요. 그분께 가서는 소아치과를 차려야겠다면서 돈을 좀 꾸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어떻게 갚겠는가 하시면서...170만원을 주셨어요. 박유신 선생님은 앞전에 계신데 김수철 선생이 반대하셨어요. 그때 참 곤란했어요. 결국 유니트 체어 13대를 들여놓고 시작했어요. 막상 들여놓고 보니까 선생 여러분들이 반대안해요.

그런데 車선생도 우리나라 치과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해놓으니까, 참 열심히인데, 만일 환자가 없으면 반대하던 보존과 쪽의 눈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거 봐라, 소아치과? 무슨...> 이런 소리가 나면 면목 없잖습니까. 그 당시 6.9행사때 마포의 어느 국민학교 구강검사를 했는데 2,000명 아동중에 아말감한 학생 2명 정도를 보았을 때였지요. 56·57·58년때였어요. 그래서 무급조교를 동원하여 덕수·교동·사대부속국민학교에 가서 구강검사 검진을 하도록 했어요. 무급조교도 거기를 나가면 학교에서는 얼마씩 사례를 하면 그것 또한 좋을것 같구해서 車선생한테 부탁했더니 소아치과에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좀 사는 엄마들은 애들만큼은 잘 키워야한다해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 부터 해달라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박승오 부회장

방학이 됐는데 치료 받으러 와 접수를 하는데 110명 120명 140명까지 하곤 했어요. 소아치과스텝 4명이 하루 온종일, 방학때는 오후 1시까지 있었는데 소아치과만 오후 6시, 7시까지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 하더라고요. 큰 주전자에 북창동 얼음집에서 큰 것 한덩어리(5원)를 넣고 설탕을 타서 목을 추기도록 했던 생각이 납니다.

겨울방학에는 더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헌선생도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헌선생을 훌륭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의:이젠 환도전, 치과의사회나 개업가, 학회 말씀을 문졌습니다.

박승오:조선치과의사회 발족관계는 어떻게 됐는지요.

김주환:그건 정확히 모르겠구요....

지헌택:조선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 이렇게 둘이 나타나서 서로 견제했어요. ...글쎄, 우리야 들은 이야기 뿐인데... 그 무렵에....

신재의:한성치과의사회에는 김용진 김연권 서병서 김재천 김종옥 김의중 김성민 홍사근 조기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헌택:그 무렵에 정보라선생....

김정균:선생님들께선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밝혀져 있는 것이라도 구술 또는 기록된 것이라도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김주환:우리는 그 얘기보다는, 池박사와 제가 졸업후에 어떻게 齒科醫師생활을 시작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池박사는 세브란

스 치과로 가서 수련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치과 발달에 크게 기여했거든요. 그 당시를 보면 우리 齒科界는 대개 두 갈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분히 보수적인 京城齒專측은 관료적이고, 세브란스 치과는 어디까지나 美國화된 신진적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 醫大 부속병원 齒科에 근무했죠. 그래서 池박사와 저는 운영이나 체계가 서로 다른 곳에서 보냈어요.

지헌택:그렇습니다. 세브란스의과대학 부속병원 齒科에 근무했습니다. 지금 서울역 건너편 주유소 뒷쪽으로 있었죠. 지금은 빌딩이 건설중에 있더군요.

세브란스에는 경치전을 나오신 안중서선생님이 계셨고 그후에 Dr. Boots가 선교치과의사로 1934년에 왔습니다. 1년반쯤 있다가, 한국치과의 현실을 보고 '아메리칸 텐티스트리'를 심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치과의사회에도 이야기해서 1만달러를 모금해서 세브란스 병원안에 덴탈빌딩을 단독으로 지었어요. 다른 곳은 목조건물인데, 덴탈빌딩은 벽돌로 최신틱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는 리터회사에서 가져왔고, 아래층 방3, 윗층 방4(?), 계단교실, 기공실, 과장실, 재료창고가 있었죠. 앞에서 이춘근선생님 말씀하셨지만 1936년에 소아치과를 시작했습니다. 소아치과 유니트가 발로 밟아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電動이었습니니다. 스위치 발판을 발로 밟으면 유니트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죠.

이곳에 제일 먼저 부임한 분이 여자치과의사 이양숙씨였죠. 雲甫의 닭그림이 있고 소아치과에 가면 목마가 있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후, 경치전 졸업생이 생기고 하니까 제일 처음으로 李有慶선생님이 근무하시게 됐죠.

마음에 정보라 선생님, 박용덕 선생님, 박유신선생님, 김정기 선생님, 김만수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근무하셨죠. 그리고 해방이 되자 박용덕 선생님만 남아계시고 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교수가 되신 겁니다.

그때 정보라 선생님 밑에서 李永玉선생님이 6개월이상 1년 가까이 계시다가 정보라선생님이 나와 개업하시게 되어 같이 나오셨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때 경성치전에서는 전치 크라운을 하려면 전부

디바이탈리제이션을 해서 오픈 크라운을 했다고 하는데, 세브란스 치과에서는 3/4치관을 했고 캡 캐스트 크라운을 했습니다. 카마이클 크라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미 정보라선생님께 강의를 받았지요.

이춘근: 그때 치과대학에서는 모리슨 크라운을 가리키고 시술도 했죠.

지헌택: 그리고 모리슨 크라운에 교합면은 주조를 해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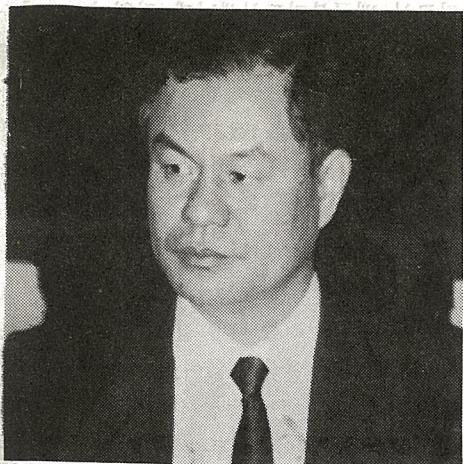
김주환: 하프 캐스트 크라운이라고 할까...

지헌택: 제가 세브란스에 있었다고 해서가 아니라齒專보다는 조금 앞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상실습은 한번도 안빠졌어요. 배구를 하면서도 자량이 아니라, 케이스 표가 다 차고... 찾는데 담임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춘근)이신데...

이병태: 선우선생님께서도 케이스가 참습니까.

지헌택: 가만히 계세요. 글썽 저는 케이스가 있는데... 선우선생은(일동웃음) 졸업은 말아야 할텐데... 저는 많이 넘었어요. 이춘근 담임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선우는 전혀 임상을 안했거든(일동웃음) 하여튼 같이 졸업은 해야할텐데, 할수 없어서 이춘근 선생님 앞에 케이스표를 내놓고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저이 선생님께서 <자네는 왜 이렇게 다 찾나!> 하시더군요. ...선생님 생각 만나실 겁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했더니 <...응? 뭐야> 하시면서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선우가 앓고 들어 누워서 케이스를 전혀 못 땀습니다. 선우에게 좀 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러지> 하시더니 승낙하셨어요(일동웃음). 사실은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그외에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과대학에 남도록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유경 선생님도 OK, 박명진선생님도 OK했고, 박유신 선생님도 OK했고, 정보라선생님도 OK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하루는 박유신선생님이 오시더니 <해군, 이리좀 오게. 자네 세브란스로 가야되겠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청천벽력같은 말씀이십니까 했죠. <세브란스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자네가 추천이 됐어.> 하시더라고요. 기분은 좋지는 않았지만 내색을 못하고 있었

요. 그리고서 배구부지도선생님께 갔었어요. 말씀드렸더니 <임상이나 또 다른면으로 좋은데가 있을거야> 하시더군요. 다음에 선생님(이춘근)께 가서 상의했어요.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아주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가는 것이 좋을거야> 하시더라고요(일동웃음). 사실, 저는 낙담했었다고요. 16일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과장이란 분이 대뜸 <자네 임상 잘한대구 소문났구먼> 하시면서 몇가지 물으시더니, 알려줄테니 집에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월말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8월 31일, 필동하숙집에 있을 때인데 이동섭선생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내일부터 나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전에 나와야 된다.> 하셔서, 7시 45분까지 나갔죠. 그랬더니 자네 지금까지 배운것 0으로 돌려. 한 1년쯤 있다가 나가서 개업이나 하지... 이게 첫마디였어요. 그후 6개월은 미리 편셋을 쥐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박유신선생님이 그러셨고 제일 밑에 계시던 분이 노성윤선생님이셨어요. 그 방에 가서 견학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서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방이 윤신현씨가 계셨는데 지나가시다가 영어로 뭐라고 하시면서, <아나?> 이런 식으로 아주 골탕을 먹였어요. 3층에 박유신, 이동섭선생님 방을 돌면서 견학만 했어요. 박용덕선생님이 커피 밴드로 인상하시는데 그림처럼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아말감 다이를 말들어 조각, 주조해서 잘 마취놓고나면 고무에다 놓고 한번 쳐서 하는 비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죠. 하루는 아래층에 빈방을 내주시면서 <세브란스 역사에 6개월만에 방차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석달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켈링 환자만 보는데 저녁이면 손목은 아팠지만... 그리고 어디가서든지 이야기하는것이 있습니다. 즉, 석달만에 셉튜리로 인레이를 하나 하는데 오전 내내 봤어요. 그리고 커피밴드와 컴파운드로 인상을 해가지고 기공사에게 주었더니, 쓱 보더니 발로 문지르면서 <다시 해보슈> 하는거예요. 야. 이럴수가.... 소리 안나는 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해갔죠. 그러니까, 엑스플로러로 <여기, 여기에 언더커트가 있으니 다시 해오시오> 하는 겁니다. 또 다시 했죠. 아침 12시가 다 되어 노성윤 선생이 <닥터 지, 점심 먹으로 가요>



신재의 부회장

하셔요. 그때 선생님. 언더커트좀 봐주시죠 했더니, 바를 한 두개 바꿔 끼시더니 <아, 여기에 언더커트가 있군요, 자 인상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상해서 가져 갔더니 그 기공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견 노선생님 숨씨야나. 야!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이더라구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총의치 할때 모델링컴파운드와 석고 연합인상을 아홉번이나 했어요. 이 시기가 바로 6.25 두 달전 애깁니다. 마지막엔 인상뜨다말고 과장실로 뛰어 들어가서 <기공사가 저를 이렇게 골탕먹일 수 있습니까>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자네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나>. ...예, 이번에 내려가서 뜨면 열번째 입니다. <이 사람아, 나 열두번 떼어, 내려가.> 하셔서 아뭏 소리 못하고 내려왔죠. 과장님 지시대로 석고 물...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나온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기공사가 <과장님 불러 대셨군요> 하더라두요. 기공사 그 사람 지금도 계신데, 지금까지 형제간 가족처럼 지내다구요. 그래서 비교적 세브란스 출신들이 개업을 해도 성공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철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Boots 선생이, 이유경선생님에게는 교정, 정보라 선생님에게는 보철을 공부하게하고 그 다음 계획이 박용덕선생님을 미국을 보내 구강외과를 하도록 했었는데 6.25가 터졌어요. 하는수 없어서 일본 의과치과대학에서 6개월간 계셨어요. 그분, 수술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세브란스에서 3년정도 있으니, 같은 3/4크라운

이라도 이견 이유경, 이견 박용덕, 이견 정보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수 있을 정도로 눈을 조금 뜨게 됐어요.

김주환: 池 박사 말씀중에 은연중에 나타나지만 세브란스 치과에서는 보철을 주력했던 것도 사실이고 선구적인 역할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서울대학은 학생교육 기관이면서 그 부속병원이니까 모든 면에 다 신경을 써야했죠.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서울의대 부속병원 치과의 양상은 좀 달랐습니다. 과장에는 生理學을 전공한 이꾸다 신보(生田)교수였는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갈때 과장을 趙昊衍씨에게 넘겼어요. 그 당시 나는 말단였는데 과장이 <서울치대는 제외해 놓고 보면 세브란스는 임상이나 보철쪽으로 하니까 우리는 학술적으로 나가자> 하시면서 처음으로 초독회를 하는데 저에게 문헌을 하나 주셨어요. 보니까 불소에 관한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불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생리학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리학 부문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감을 가졌지요. 그때 의국원에는 文東先 金永昌 金重基 方慶煥 金庚煥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후에는 서울대학병에 치과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대부속병에 있는 것이 제1병원이고, 지금 수도통합병원, 서울지구병원(전 수도육군병원 경북궁 옆)에 제2병원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치과대학 졸업생은 의과대학 3학년으로 편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의를 하러 조호연과장께 갔더니 첫마디로 야단을 치면서 <치과영역에서 치과의사로서 봉사를 해라> 하셨습니다. 6.25 얼마후 以北으로 가셨는데, 가시기 며칠전까지 같이 생활하고 저녁에는 창경원 앞에서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러자 鄭用國교수가 치과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제2병원에는 金모교수(생각이 잘 않남)가 오시고요... 당시에 제가 의국장을 했는데, 6.25나자 이틀후 원장실에서 戰時의 제반업무처리에 대한 것을 제가 지시를 받고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서울대학병원이 부산 36육군병원에 편입됐습니다. 그때 저와 김창욱씨 둘이 부산으로 해서 제주도로 가 구호병원을 차렸습니다. 齒科전부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다른 과 교수들은 청진기

나 기구 몇 가지 그리고 약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치과만 유독 유니트 체어가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무료진료도 하고 일반인 진료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이쿠다 일본교수가 하는 말이 <한국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스테미너가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늘과 치아와의 관계를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후 일본에서 <아리나민>이 나왔죠. 반드시 이분이 주장했다는 것 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는 이재철 장군과 안경선도 같이 있었는데 안경선은 北으로 끌려갔어요.

이춘근: 6.25가 나니까 자기 집, 처자식도 중요하지만 자기 직장, 자기가 소속해 있는 기관을 아끼는 맘이 대단한 것을 보았고 또 느꼈어요. 정말로 학교 교수들이 유니트 엔진 다 떼어 싸고, 요즘 보면 골동품도 상골동품격의 현미경 23대를 부산으로 피난가는데 다 가지고 갔어요. 애교심이라고 할까, 직장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 그걸 메고 들고 끌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부산 판자집 교사에서 불이 났는데, 글썄 누군가 현미경을 오줌통에 던져 넣어 타지 않게까지 했으니(일동웃음) 그 후에 꺼내서 닦고 말리고 해서 또 썼죠. 30·40년 쓴 고물이었죠. 그리고 세브란스 Dr부츠 얘기가 나왔으니, 화가 김기창씨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화가로 유명하게 되게 해준 사람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닥터 부츠라고했어요. 김기창씨 어머니가 닥터 부츠집에 가정부로 있었대요. 김기창씨가 16·17세때에도 그림을 제법 잘 그렸대요. Dr부츠가 어머니에게 얘기했대요. <내가 크리스마스때 그림을 판매해 줄테니까 한국의 민속도를 그리도록 하세요> 했대요. 이런 계기로해서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에서도 지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는데 큰 몫을 했답니다. 김기창씨와 치의학 그리고 세브란스 치과 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병태: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鄭用國교수 말씀하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김주환: 경의전 부속병원 치과에 과장이셨죠. 그런데 그때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과 경성제국대학(서울대전신) 출신과 다소간의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서도 흡수를 하느냐 않하느냐 하다가 국가에서 양쪽을 다 합류시켜야 되겠으니까 모든 체계는 그대로 두고 제1병원, 제2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호연선생이 가고 앉게시니까 정용국선생이 오셨어요.

이춘근: 정용국 선생님은 성격이 그렇게 활발하시지는 않았습니니다.

김주환: 정용국 선생님과 조호연선생님은 6.25전에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세미나를 해도 정용국 선생님은 잘 오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있는데 좌구 우구들은 의사가 되고 정평구씨는 치과의사가 돼서 안국동에서 가업을 이었었죠.

김성남: 당시 학술활동은 어떠했습니까.

이춘근: 학술대회는 1946년은 <국대안> 반대운동 때문에 못했고 1947년 10월에 첫번, 제1회를 거행했어요. 들어보세요...학생도 동원하여 빵 두개씩 주기도 했지만, 좀 지난 다음에는 치과대학 마당에 가마솥을 걸고 설렁탕을 끓여 대접했죠. 그때는 요즘처럼 등록비를 받으면 사람이 오나요? 120명이 모였다하면 대단한 잔치였지요. 하여튼 1회때 연제가 22개였는데 한 연제에 10분씩 하는데 그게 10분만에 끝나나요. 그연제를 제대로 하자해도 하루가 꼬박 넘는다구요. 그때 제가 6연제, 이유경 4연제, 박명진 학장 1연제 이렇게 했습니다. 박명진학장님은 바빠서 못하시는 건데 그래도 안됩니다 해서...하셨습니다.

이병태: 기록에 보니까, 끝날때 만세삼창 하셨던데요.

지현택: 그저 그때는 뜻있는 모임이면 끝날때 만세삼창을 했지요.

이춘근: 그리고 8.15 당시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교직원 명단이 내게 있어요.(별표 참조)

신재의: 미군군정청에 와있는 미국치과군의관들도 와서 특강을 했다는데...

이춘근: 그럼요. 그때, 소공동에는 한국회관이란 큰 음식점이 있었는데... 참석한 미군 치과군의관들을 전부 데려다가 냉면 대접을 했죠. 서울에 나와 있는 47명 중 42명이나 참가한 적이있어서 우리 치과계는 처음부터 학구적이고 임상적인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냉면을 먹는데 찔



김성남 총부

때는 그네들과 금방친해졌지요.... 그러다보니까 더욱 친밀해졌고, 우리를 38선 치과의사 학회에 초청해서, 갔었죠. 장소는 이태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병태: 선생님, 그 당시 교재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춘근: 순전히 강의, 강의록이었지요.

신재의: 국립도서관 자료를 보니까, 일제시대에 쓰던 교과서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춘근: 일제시대의 것은 있지요. 너무 답답해서 59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들려 치과 의과... 하여간 우리와 관계된 것을 50여권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참고를 하고 그랬죠.

이병태: 京城齒科醫學會誌가 1945년 5월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50년도까지 어떤 활동이 없었을까요.

김주환: <국대안> 반대, 미군정, 정부수립 이런 사회적 정치적 변천시기라서 저술이나 학술활동이 활발할 수가 없었지요.

이춘근: 다만 조선치과의학회지가 50년 1월에 창간됐지요. 그때 내돈 13만원들여서 만들었어요. 회에서 준다 준다하더니 양줘서 못 받았어요(일동 웃음).

신재의: 두툼하게 잘 만드셨어요.

이춘근: 치과의사의 집안이 인쇄소를 하는데 말기자고 해서 맡겼는데 요즘보면 冊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신재의: 해방직후에 무료진료봉사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춘근: 美軍政때, 한지치과의사 기공사를 2주일 간 특강을 해서 검정치과의사 면허를 주게했어요. 치과대학 강당에 150여명이 꽂치는데 강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군이었죠. 보철보존에는 이유경 정보라 박유신 선생이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 많은 강의 시간에, 단기간에 강의 준비가 충분할 수가 없었죠. 그래 그분들이 강의하시고 지치거나 힘들면 중간 중간에 저더러 하라고 해서 남는 시간에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아아, 혼 났지요. 4시간에서 6시간씩 했는데 기공사가 해부학 생리학도 모르는데다 외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과 같도록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 못 딸아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때 池 박사과 金 회장, 여기 두분이 4학년때인데 무료진료를 보내야했는데, 특강을 받았던 한지치과의사와 기공사출신들에게 연락을 했죠. <여기, 齒大生들이 하기방학을 이용해 무치의촌 진료봉사를 하려는데, 그 옆지방에 몇몇 학생이 갑니다. 숙식만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들이 와서 다하면 우리네 수입이 없어진다면 난색을 표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환영하고... 의견이 반반이었습시다.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았더니 대부분이 승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명단과 우리 무료진료 학생명단을 지도상에 올려보았더니 제주도까지 다 뻗어요. 그런데 진료를 나간 학생들은 주로 以北사람들이었어요. 여름방학때 친척집에 있기도 뭇하고 또 하숙비도 없고 해서 아주 잘된것 아닙니까?(일동 웃음).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마강 유역에 콜레라가 돌아서 지도교수도 학생도 다 양게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서울시廳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서울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광목 10여필을 주더군요. 이것으로 위생복을 만들었죠. 또 통조림을 많이 받았구요. 그리고 개업한 동창들은 학생들이 무료진료를 나간다니까 5천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내놨어요. 모금이 많이됐습시다. 保社部에서는 포스타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런가 했더니 保社部에서는 나가는 바에 콜레라주사까지 놓아달라고 왁친까지 주더군요. 한달동안에 전국에 다 나갔어요. 어느 곳은 진료왔더니까 600명이나 몰려온 곳이 있었어요. 또 어느곳은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대접을 해 주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고... 하여간 대단했죠.

이렇게 출발하기전에 축하를 해야했는데 술이 있어야지요. 학교에 있던 무수알콜에 물을 타서 큰잔에다 부어 마시고, 장도에 올랐어요.

김주환: 제주도도 비행기타고 갔다구요. 보사부 입김였지요. 방역문제로... 여의도비행장에서 출발했는데, 제주도 갔다온 사람은 물론이고 모두가 비행기 탔다는 얘기는 매일, 하루에도 몇번씩, 몇달동안 했죠(일동웃음).

당시 진료는 주로 발치였지요.

지헌택: 학생 입장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입장에서 독립한 국민들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봉사였지요.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병태: 당시 일반 국민들의 치과대한 인식을 어떻게했습니까.

지헌택: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과는 거리가 멀었고 아주 형편없을 정도였죠.

이춘근: 진료박스를 들고 다녔는데, 요즘도 그때 그모양이어서, 그건 그대로 전통이 선것 같아요. 요즘도 진료박스, 기계통 아시지요? 그리고 어떤 면장은 돈도 내놓아요. 다시 돌려 줄려니까 울려고 해요. 가져와서 학생들이 나눠서 책사고 공책사고 했지요.

이병태: 당시에 醫科大學에서도 무료진료활동을 했겠죠?

지헌택: 학생이지만 장차 자기 전문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했는데, 무료진료는 저희들이 한것이 효시였습니다.

이병태: 미군정 당시의 치무행정은 어떠했습니까.

김주환: 미군정시대에는 미군정청에 齒務局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에 치무과가 있었죠. 이계통에 자세한 얘기는 원재신 김철용씨 그리고 오용서 김남규... 이런 분들에게 묻는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겁니다.

박승오: 먼저 치과관계 방송에 대하여 여쭙 보겠습니다.... 김문조 서병서 김종옥 김복덕 김유봉 이응순 출연으로, 김문조 작 방송극<보건생활 첫걸음>을 방송했다.... 1947년에 방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헌택: 1947년이라면 6월 9일에 했을텐데...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인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강보건주간(?)이란 이름으로 행사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당시 박명진 학장께서 설명하기를 “왜 6월 9일을 택했느냐 이것은 <6세 구치>다.” 齒科大學 마당에서 이런 설명을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재의: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용진위원장과 경성치과의사회 한동찬회장 사이의 관계가 아주 나빴습니까?

이춘근: 아니, 그건 잘 몰라요.

신재의: 기록에 보면 최의종이란 분과 조용기라는 분이 물리적인 다툼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주환: 이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부산동아대학에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때 김용진회장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서울의 송××씨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럴수가 있는가 하면서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지헌택: 그때,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송××씨는 의기양양한 청년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죠. 요는 그 무렵에 몇사람이 치과의사회를 장악하여 이상하게 흔들려고 했던 것도 사실예요.

김주환: 그런데 김용진 선생님은 맘이 아주 곱고 좋으신분이죠. 그래서 뒤에서 하자고 하는대로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이사였었는데 종로2가 냉면집에서 거의 매일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에 모이면 매일 재판이니 진정서니 이런 애깁니다.

이병태: 11시가 가까워 졌습니다. 사실은 10시까지 정해놓고 좌담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終戦時在籍職員(1945年 8月 15日)

氏 名	職 名	住 所	電話番号	郵便番号
・柳薬達見 (柳薬仁子)	学校長 教 授	京都府長岡京市東補足1-7-11	075-951-1739	617
・弘田精一 (弘田喜美子)	学 長 教 授 補 綴	新潟県上越市西城町3-8-4	0255-24-2617	943
・垣见庸三 (垣见和由)	口腔外科 教務主任 教 授	京都市左京区鹿ヶ谷杵谷町43-2	075-761-2538	606
・前田正次 (前田田ミヨ)	獨乙語 教 授	鹿児島市上福元町2754	0992-67-1156	891-01
・草原雄一郎 (草原カオル)	保 存 教 授	福岡市南区長住 4-11-23	092-551-7944	815
・折田武雄 (折田スキ)	化 學 教 授	鹿児島市上龍尾町32-19	0972-47-2392	892
横田成三	矯 正 教 授	福岡市西区徳永484-2「伊部の里」	092-807-8135	819-03
稻川英一	補 綴 教 授	東京都中央区銀座5-5-9 西銀座ビル	03-571-0418	104
原田一幸	保 存 教 授	熊本県牛深市牛深町2595	09697-2-2837	863-19
牧山正文	組 織 口腔外科 教 授	岡山市浜1-14-19	0862-72-2629	703
・安 正浩 (安和枝)	補 綴 助教授	大韓民國京畿道安養市一洞632-12		
徳丸定樹	解 剖 助教授	西宮市高松町11-2 701號	0798-65-3364	663
・矢崎武男	保 存 助教授	名古屋市南区中轄町1-11-2	052-611-0946	457
李 春根	口腔外科 助 教 授	ソウル特別市鍾路区清進洞292-2		
・渡邊崎太郎	生徒主事 陸軍大尉	御遺族なし		
渡邊重芳	軍事教官 陸軍大尉	横浜市緑区川和町2674-49		226
福村 篤	庶務主任	鹿児島市上福元町4524		891-01
池上龜喜	薬 劑 員	岸和田市吉井町3-25-2		596
・杉原徳行 (杉原秀子)	非常勤講師 薬 理	京都府長岡京市東代77-22	075-921-220	617
・律崎孝道 (律崎逸郎)	非常勤講師 解 剖	東京都武蔵野市吉祥寺東町2-7-10	0422-22-8980	180

< 제공 : 李春根 >

학회소식

6월 이사 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

- 날 짜: 6월 25일 아침 8시
장 소: 뉴내자 호텔
안 건: 1. 각대학 치과의사학강사 확인
이한수, 이병태, 박승오 외.
2. 학회지 원고모집
3. 회원 증가방안 모색
4. 회장(이병태)의 訪北 및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얻도록 통일원에 신청할 것.
참석자: 이한수,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신재의,
홍예표, 김성남

7월 이사 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

- 날 짜: 7월 16일 아침 8시
장 소: 뉴내자 호텔
안 건: 1. 학회지 발간지연 문제 검토
① 원고 부족
② 타개책: 기획원고 구상
2. 각 대학 의과학 강의 교재의 기본을 정
하는 방안.
참석자: 이한수,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김성남.

8월 이사 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

- 날 짜: 8월 27일 아침 8:00
장 소: 뉴내자 호텔
안 건: 1. 학회지 원고청탁
① 각 치과대학 교실사
②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사
③ 기획원고: 좌담회 개최
제 목: 1945년~50년 사이의 치과계
참석자: 이춘근, 김주한, 지헌택
시 기: 추후결정
2. 12월 세미나 준비
3. 치협 창립 70주년 종합학술대회에, 본
학회에서 테이블 클리닉에 참가할 것.
제목: 중국치과 간행물 소개

참석자: 김정균, 이병태, 신재의, 김성남

10월 이사 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

- 날 짜: 10월 29일 아침 8시
장 소: 뉴내자 호텔
안 건: 1. 원고모집
2. 좌담회 개최 날짜 및 장소
11월 13일
만강홍(중국집, 강남 신사동)
3. 11월 세미나
연자: 이한수
장소: 신협
4. 中國口腔醫學史考(周大成 著)
참석자: 이한수,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신재의,
홍예표, 김성남

특별기획좌담회

8·15이후에서 6·25전까지

- 날 짜: 1991년 11월 12일
오후 6시 30분 부터 11시까지
장 소: 만강홍
내 용: 본문기사 39~56쪽 참조

11월 이사 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

- 날 짜: 11월 26일 아침 8시
장 소: 뉴내자 호텔
안 건: 1. 분량이 적더라도 학회지를 빨리
발간할 것.
2. 11월의 집담회는 12월 13일로 연기.
3. 각 학회 원로들을 회원으로 가입할
방안 모색.
참석자: 이한수,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신재의,
홍예표, 김성남

91년 송년 학술집담회

- 날 짜: 12월 13일 하오 7시

장 소: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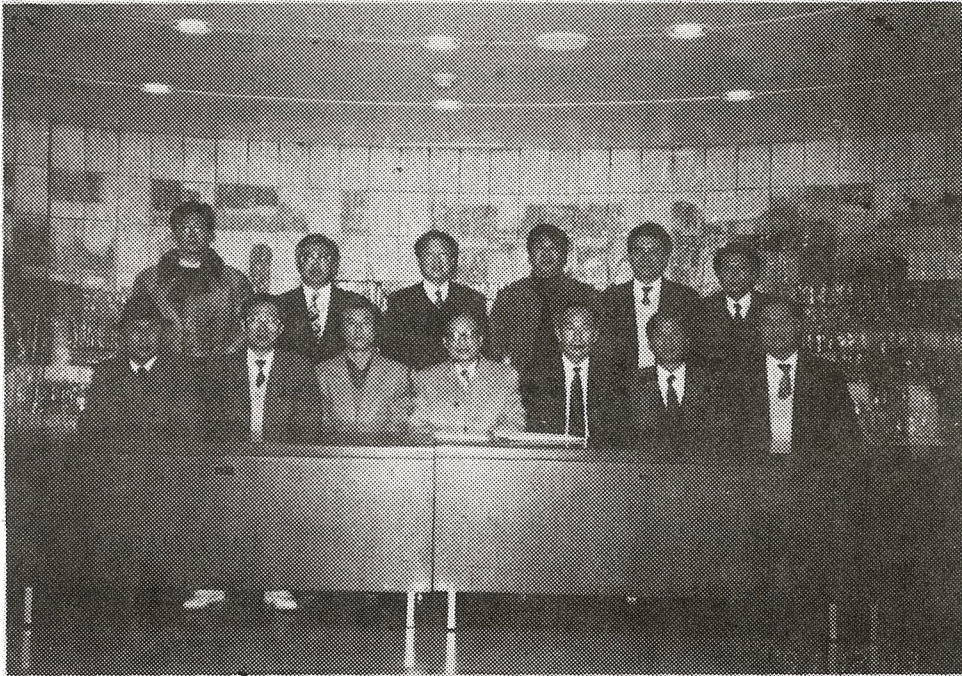
연 자:이한수 박사

연 제:東醫寶鑑의 齒科醫學의 特性

참석자:김정균, 김희진, 이병태, 박승오, 김종만,

김성남, 최선웅, 허정국, 신재의, 배광식,

홍예표, 이시우



신간안내 / 李 漢 水 著

韓國齒學史

이 책을 내면서

저자는 먼저 이 책을 우리 나라 치과의학 발달을 위해 크게 헌신하시고 이제는 그 존함마저 잊혀진 우리 모든 선배님들 영전에 바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이 그 여러 선배님들의 공덕을 가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잘못을 어찌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풀어 본다.

이 책은 저자가 이 강산의 치과의사로 서 하나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주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하는 뜻에서 썼다.

본서의 내용은 196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위시한 연세대학교·경희대학교·조선대학교·연세대학교 의학교수연구원 치과위생과 등에서 치과의사학 강좌로서 강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본서의 구체적인 집필의 착수는 각 대학에서 저자가 담당했던 강의 내용을 일단 1972년부터 서서히 정리하면서부터이다. 1983년에는 당시까지 일단 중단되었던 대한치과의사학회 학회지의 발행이 중단됨에 따라 저자는 그때부터 1987년까지 만 5년간을 전후 5회에 걸쳐 정리되었던 논문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 일단 발표하였던 내용들을 재차 정리하며 공인된 학회를 통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거쳐 이제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되었다.

요즘 치과의사학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점은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학이 치과의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분과로서 깊이 인식되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줄 안다.

치과의사학 강좌는 현재 국내의 모든 치과교육기관에 있다.

韓國齒學史

李 漢 水 著

서울대학교출판부

□역대회장□

1960. 10. 7~1974 李漢水

1975~1981 李德一

1982~1983 李漢水

1984~1988 金正均

1989. 6. 13~현 李丙台

종신명예회장

이동섭

이덕일

전 회장 이한수

직전회장 김정균

□임원명단□

회 장 이병태

부회장 박승오

신재의

이 사 김지호

허정규

배광식

홍예표

감 사 이시우

임경빈

1991년 12월 25일 인쇄

1991년 12월 30일 발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2권 제2호 통권14호

<비매품>

발행인 : 이 병 태

편집인 : 김 성 남

발행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의사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3동 409-1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12, No. 2, 1991

Publisher : Lee, Byung-Tae

Editor in Chief : Kim, Sung-Nam

Address Yung-Doong-Po,

C.P.O.Box 41, SEOUL, KOREA